

# 오늘의 도서관

## 종이 복사, 혁명

오늘날과 같은 복사기가 없던 시절, 등사판은 문서, 시집 등의 복사본을 제작하는 수단이었다. 토머스 에디슨이 등사판 아이디어를 우연히 떠올렸고, 이를 발전시켜 '자동화 인쇄'라는 명칭으로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며 등사판은 세상에 나왔다. 초창기 에디슨 등사판은 사람의 손으로 잉크를 바르고 찍어내는 방식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 잉크 공급이 가능한 회전 실린더를 사용하는 장치로 발전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의 복사기, 잉크젯 프린터 등이 출현했고, 현대인들은 어디서든 출력물을 공유하고 복제해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등사판은 박물관 속 전시물이 되었지만 토머스 에디슨의 '종이 복사'라는 개념은 여전히 현대의 발상이 되어 디지털 시대에 존재하고 있다.



종이 복사, 혁명



월간<오늘의 도서관>은 누리집([www.nl.go.kr](http://www.nl.go.kr))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데이지(DAISY,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오늘의 도서관

vol. **307**  
2022. 11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기록매체박물관

| 표지 이야기 |

에디슨 등사판

기름을 먹인 얇은 종이를 줄판 위에 놓고 철판로 굽어서 구멍을 낸 뒤 이를 틀에 끼운 다음 잉크를 묻힌 롤러를 굴려 종이에 글씨나 그림을 나타내게 하는 간단한 복사기다. 이미 인쇄술이 있었지만 에디슨 등사판은 인쇄된 많은 제작물의 복사본을 만드는 도구였기에, 당시 잡지와 시집들의 폭발적 증가를 촉발시켰다.

월간 <오늘의 도서관> 제32권 제9호 통권 307호

발행일 2022년 10월 31일 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167-06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편집위원 김윤, 손효림, 송재술, 김승정, 박수영

편집 이정화 todaylibrary@korea.kr

주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6331 팩스 02-590-6329 누리집 www.nl.go.kr

제호 강병인 디자인·제작 P31 02-3141-2760

외부 필자에 의해 제공된 콘텐츠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06



## Contents

### 늘 서재

- 04** **오늘의 칼럼**  
사서의 사회적 역할과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
- 06** **자료 보존 이야기**  
한글 첫 번역소설 <턴로력명>  
<턴로력명>의 역사적 의의와 소장 가치
- 10** **장서 속 인물들**  
<태교신기장구대전> 이사주당  
조선시대 여성이 쓴 최초의 태교서
- 14** **사서는 독서 중**  
사서와 함께 떠나는 독서 여행

오늘의 도서관 11월호를 SNS에서 만나보세요.

- blog** 블로그 [blog.naver.com/diblibrary1004](http://blog.naver.com/diblibrary1004)
- Instagram** [www.instagram.com/nationallibraryofkorea](http://www.instagram.com/nationallibraryofkorea)
- f** 페이스북 [www.facebook.com/national.library.of.korea](http://www.facebook.com/national.library.of.korea)
- ▶** 유튜브 [www.youtube.com/nationallibraryofkorea](http://www.youtube.com/nationallibraryofkorea)

### 열린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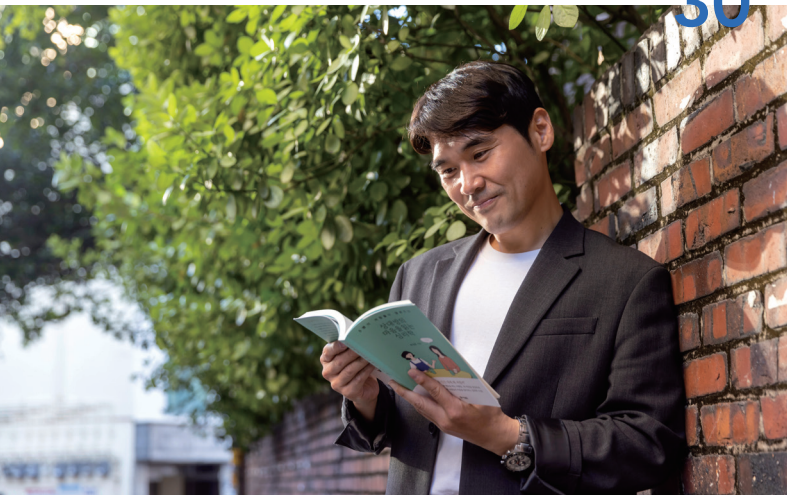
- 18** **나를 키운 도서관**  
구선아 책방 대표와 광명시 하안도서관  
안녕하세요, 도서관의 단골입니다
- 22** **해외 도서관 랜선 투어**  
지극히 개인적인 공공을 위한 도서관  
스웨덴 도서관
- 26** **도서관 트렌드**  
발견의 즐거움  
도서관 속 큐레이션의 세계

### 북 라운지

- 30** **오늘의 만남**  
심리학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사람  
심리학자 정성훈
- 34** **우리가 사랑한 작가**  
편지 안에 숨겨둔 진심  
프란츠 카프카
- 38** **독립서점 산책**  
대전 독립서점 '다다르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서점
- 42** **책 읽어드립니다**  
보니 가머스 <레슨 인 케미스트리>  
여성 화학자가 들려주는 인생 수업
- 46** **꺼내 먹는 책**  
에세이 <애플 타르트를 구워 갈까 해>  
관계를 잘 유지하는 비법, 애플 타르트
- 48** **책 듣는 시간**  
앤드루 포터 소설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감정의 절제가 만들어낸 서늘한 아름다움

### 도서관 소식

-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 56** **국내외 도서관 소식**
- 58** **웹툰-국립중앙도서관 이용백서**  
연구정보서비스 RINK



<오늘의 도서관>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제도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공개하고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www.kogl.or.kr](http://www.kogl.or.kr)



# 사서의 사회적 역할과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

글 김영석 (사)한국사서협회장·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도서관과 사서는 언제나 그 시대, 그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의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는 제대로 인식되고 인정받을 수 있다. 나아가 사서의 사회적 역할도 재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내일신문> 2022년 9월 28일 자에 의하면 2021년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1만 3352명으로 하루 평균 36.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23.6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매우 놀랍고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향후 2~3년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모두가 알면서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통계가 바로 우리나라 자살자 수다. 워낙 민감한 사회문제이다 보니 ‘모방자살효과(Co-pycat suicide effect)’가 나타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시점에서 도서관과 사서는 우리 사회의 자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나름대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 알다시피 이제 우리는 주변에서 각종 도서관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초·중·고등학교에는 학교도서관이, 2년, 4년제 대학교에는 대학도서관이 있다. 그리고 국민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은 전국에 1208개관 있으며, 직장과 기관에도 600여 개의 전문도서관이 있다(2022년 기준). 한마디로 전 국민 모두가 학교나 직장, 일상생활에서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 각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인프라와 유익한 자료를 활용



해 도서관과 사서가 우리나라 자살률을 낮추는 데 앞장서고, 그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관을 뛰어넘는 범도서관 사서로 추진(TF)팀을 구성한다. 둘째,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살 원인을 성별·연령별로 면밀히 분석한다. 셋째, 성별·연령별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되는 도서, 즉 사람의 아픈 마음과 정신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여 상황별 도서목록을 만든다. 넷째, 이렇게 완성된 성별·연령별 특별 도서목록 중에서 각 도서관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도서를 재선정한다. 다섯째, 선정 도서를 전국 개별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 둔다. 그리고 이러한 도서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상황별 도서에는 심리적·정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는 제목, 예를 들면 ‘가족과 친구가 그리울 때 읽으면 좋을 책’ 등과 같은 제목을 붙이도록 한다.

도서관과 사서는 사람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돕는 ‘힐링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healing content curation service)<sup>2)</sup> 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서비스 정보와 취업 정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심리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민의 자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복합 힐링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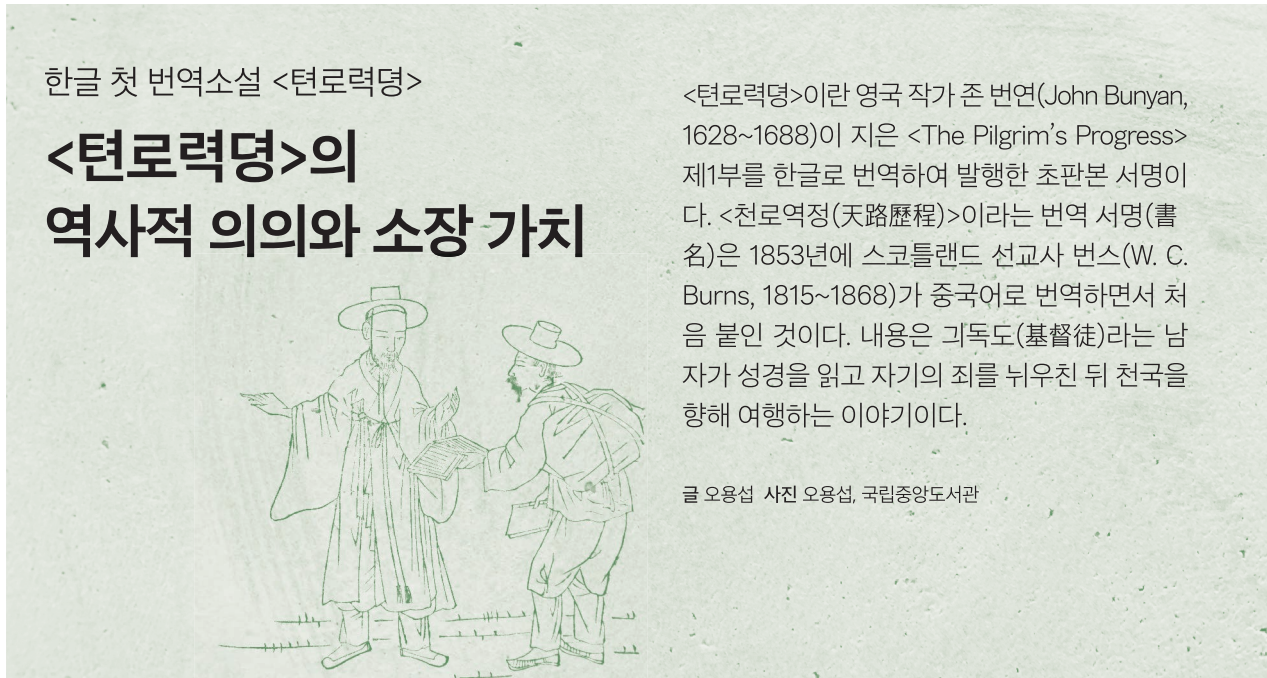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여러 도서관에서는 독서치료용 자료를 구비해 제공하고, 상황별 도서목록을 만들어 이용자 스스로 유익한

자료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서비스는 일부 도서관에서만 선택적으로 이루어졌고, 자료의 주제 분야도 특별히 자살률을 낮추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 왔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전국의 모든 도서관과 사서가 함께 참여하고, ‘복합 힐링 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범도서관·사서 운동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의 모든 사서가 함께 참여해 자신들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도서관의 자료와 시설을 활용해 높은 자살률을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운동은 도서관과 사서가 우리 사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9. 27.)

2. 힐링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healing content curation service)는 이용자의 관심사 및 상황 맥락(context)을 파악하여 이용자 맞춤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양 종교소설을 누가, 왜 한글로 번역하였는가

<턴로력명>은 조선 선교를 위해 캐나다에서 건너온 선교사 제임스 게일(James. S. Gale, 1863~1937)과 해리엇 깁슨(Harriet E. Gibson, 1860~1908) 부부가 <The Pilgrim's Progress> 제1부를 국역하여 발행한 초판본이다. 40년간 한국에 머물렀던 제임스 게일은 1888년 대학기독교학생회(YMCA) 활동을 위해 처음 부산으로 왔다. 국역은 부인 해리엇 깁슨이 1891년 전후에 먼저 시작하여 1894년에 완역을 하게 되었다. 이 일은 한문에 능통했던 조선인 이창직(李昌植, 1866~1936)을 비롯한 몇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턴로력명>.

<턴로력명>이란 영국 작가 존 번연(John Bunyan, 1628~1688)이 지은 <The Pilgrim's Progress> 제1부를 한글로 번역하여 발행한 초판본 서명이다. <천로역정(天路歷程)>이라는 번역 서명(書名)은 1853년에 스코틀랜드 선교사 번스(W. C. Burns, 1815~1868)가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처음 붙인 것이다. 내용은 기독교(基督徒)라는 남자가 성경을 읽고 자기의 죄를 뉘우친 뒤 천국을 향해 여행하는 이야기이다.

글 오용섭 사진 오용섭, 국립중앙도서관

몇 조선인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게일은 1888년 12월에 조선에 입국한 이후 1927년에 떠날 때까지 번역이나 창작을 통해 조선을 서방세계에 널리 소개하였다. 그래서 그를 “참으로 낭만적인 프로테스탄트” 또는 “선교사이면서도 문학, 문화 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교가 원주민의 문화와 융합하는 데 초석을 놓은 진보적인 신학자”로 평가하기도 한다.

#### 두 종류로 동시에 발행된 초판본

게일과 해리엇 부부의 번역본은 서울에 소재한 배재학당의 삼문출판사(The Trilingual Press)에서 1895년에 목판본으로 발행되었다. 또한 게일과 해리엇 부부는 저렴한 가격의 신활자본을 중국 상해에서 동시에 발행하고 국내로 입수하였다. 그래서 국내에는 두 종류의 판본이 함께 소개되고 판매되었다. 당시 선교활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창간된 영어잡지 <The Korean Repository>(1896)의 광고 면에는 <턴로력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턴로력명>은 두 종류의 판이 있다. 한 종류는 조선 종이에 찍은 목판본이다. 삽도가 있는 최고 수준의 조선(전래의) 형식이며, 두 책으로 장책되었다. 다른 종류는 작은 활자로 중국 종이에 찍은 한 책으로 역시 삽도가 있다. 조선 종이에 찍은 책은 소매(날권)로는 1\$, 도매(대량)로는 90c이다. 중국 종이에 찍은 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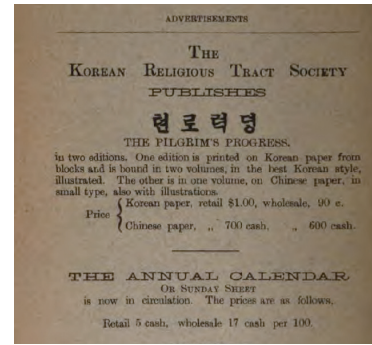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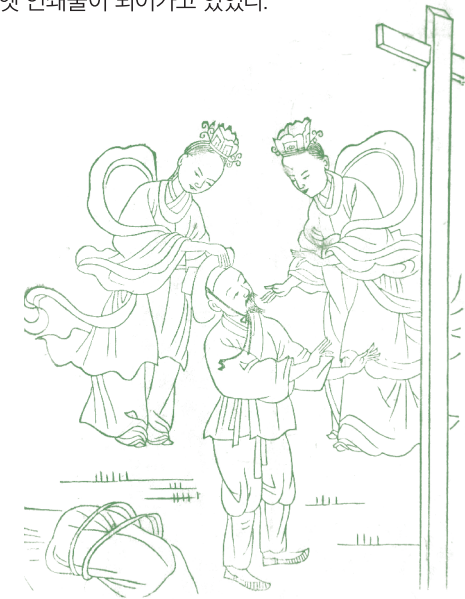
소매(날권)로는 700cash(전), 도매(대량)로는 600cash이다.”

후일 게일 연구자인 리처드 러트(Richard Rutt, 1925~2011)도 <James Scarth Gale and his History of the Korean People>(1972)에서 두 판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895년에 장로교 선교부에 의해 서울에서 간행되었다. 그것은 감리교인 배재학당의 삼문출판사에서 한지에 찍은 목판본 두 책으로 전통적인 멋진 장정(선장본)이었다. 금속활자로 찍은 또 다른 판은 게일이 전 가족과 함께 방문했던 상해에서 신식 중국 종이에 인쇄되었다. 두 판본 모두 원산의 미술가인 김준근의 멋진 선화(線畵)가 있다.”

프랑스의 서지학자인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1865~1935)도 <한국서지 부록>(1901)에서 두 종류의 판본에 대해 간략하게 수록해 놓았다. 그런데 두 종류의 판본 중에서 목판본은 영문으로 된 표제지가 있고 판매를 위한 화폐단위로 볼 때 외국인용을 주 수요층, 신활자본은 판매를 위한 화폐단위와 저렴한 가격으로 보아 내국인을 주 수요층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문헌을 시차를 두고 활자본과 목판본으로 발행하는 사례는 우리의 고인쇄사에서 더러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인 목판인쇄와 서양 전래의 신활자(납활자)인쇄로 동시에 발행한 사례는 이 시기에 와서야 볼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동서양의 인쇄가 <턴로력명>에서 오버랩(overlap)되면서 우리의 전통 인쇄는 점차 옛 인쇄술이 되어가고 있었다.



턴로력명(목판, 신활자본)의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광고 모습.



(왼쪽) 조선인 복장을 한 <턴로력명>의 신활자본 삽화. (오른쪽) 주인공 기독교도가 악귀를 만나 기도하는 모습의 삽화.

#### 금상첨화 격인 김준근의 삽화

<턴로력명>은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의 대상이 된다. 처음에는 19세기 말기의 한글 정형을 볼 수 있다는 점과 근대 시기 서양문학 번역물이라는 점 때문에 국어학과 번역문학 분야에서 관심을 받았다. 이후에는 이 책에 수록된 기산(箕山) 김준근(金俊根)이 그린 한국식 삽화 42점에 대해 민속, 복식, 미술사, 신학 등의 분야에서도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전문가로서의 명망을 갖춘 미술가로서 그의 삽화는 조선인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훌륭하다”라는 게일의 평가와 같이 그의 삽화는 이미 우리의 것으로 창작되었다. 또 발행 당시 찰스 빈턴(Charles C. Vinton, 1856~1936)은 서평에서 “외국인이 아닌 조선인으로 묘사하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선 그림의 훌륭함을 넘어서 예술품”이라고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천로력명> 표지 및 내지.

### 반쪽만 남아 있는 목판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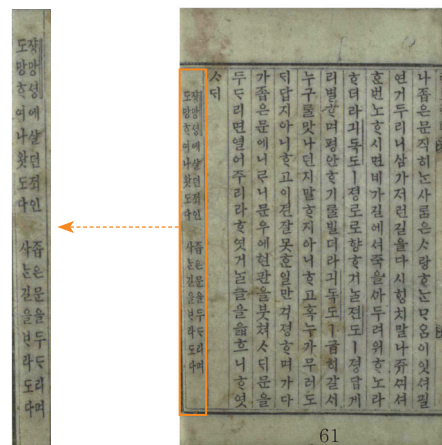
현재 <천로력명> 전체 목판 중 일부인 69판이 배재학당 역사 박물관에 전하고 있다. 그런데 남아 있는 목판 중에는 좌우 두 쪽 중 반이 절단된 반쪽 크기의 목판 5판이 있다. 잘려 나간 5판 목판의 반쪽은 삽화가 새겨진 부분이다. 그런데 목판본에서 삽화가 있는 면의 테두리를 자세히 살피면 모두 끊어져 있거나 고르지 않는데, 그것은 분리된 삽화 목판으로 인쇄한 흔적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목판이 완성되자마자 삽화 부분이 절단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중국 상해에서 발행된 신화자본에 동일한 삽화를 찍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른쪽은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소장의 반쪽 크기 목판(제85장)의 반전 화면. 왼쪽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해당 면.

### 소장본의 의미와 가치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목판인쇄본의 상하 완질 2책이 소장되어 있다. 5침(다섯 개의 구멍을 뚫어서 꿰맨 책)의 선장본(인쇄된 면이 밖으로 나오도록 만든 책)으로 개장되었는데, 원래의 <천로력명>은 4침으로 되어 있다. 상하 2책 모두 앞의 면지에는 1963년 6월 18일의 등록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입수한 지 근 60년이 된다. 현재 국내에는 2책 중에서 1책만을 소장한 기관이나 개인이 적지 않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에 2책 완질이 갖춰져 있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목판본은 띄어쓰기나 단락 구분, 대화의 처리 장치도 없는 순 한글로만 표기된 번역본이다. 지명은 그 오른쪽에 두 줄, 인명은 그 오른쪽에 한 줄을 그어놓아 새로운 단어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을 디지털 원문 자료 열람을 통해 볼 수 있다. 끝으로 <천로력명>은 19세기 말기의 한글 정형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가치를 지닌다. 또한 현대식 인쇄출판을 통한 기독교문화와 복음 전파, 그리고 외래 종교를 주체적으로 수용한 김준근의 삽화는 토착적인 전통이 반영된 한국 개신교 미술의 효시가 된다. 이렇게 <천로력명>은 국어학, 번역문학, 개신교, 미술사, 서지학적인 측면에서 큰 가치를 가지는 문헌이다. ❹



두 줄로 따로 설명을 달아놓은 모습.

### 오용섭

중앙대학교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 문헌정보학과에서 서지학을 전공했다. 현재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있으며, 한국서지학회 회장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을 역임하였다.

## <천로력명>과 같은 고문헌 포쇄(먼지 제거) 및 소독

<천로력명>은 1800년대 후반에 발행된 우리나라의 고문헌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고문헌 보호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고문헌 포쇄(먼지 제거)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포쇄란 오랜 세월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 종이류에 흔히 발생하는 생물학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이러한 과학적 보존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나라의 기록문화유산이 손상 없이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고 있다.



① 포쇄 장치(분진 제거기)를 사용하여 자료의 먼지와 미생물 제거



② 빈 서장 청소 후 포쇄한 자료 임시 보관



③ 포쇄한 자료 집중 소독



④ 소독한 자료 제자리에 배가

\* 참고 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 포쇄(먼지 제거) 및 소독과정 동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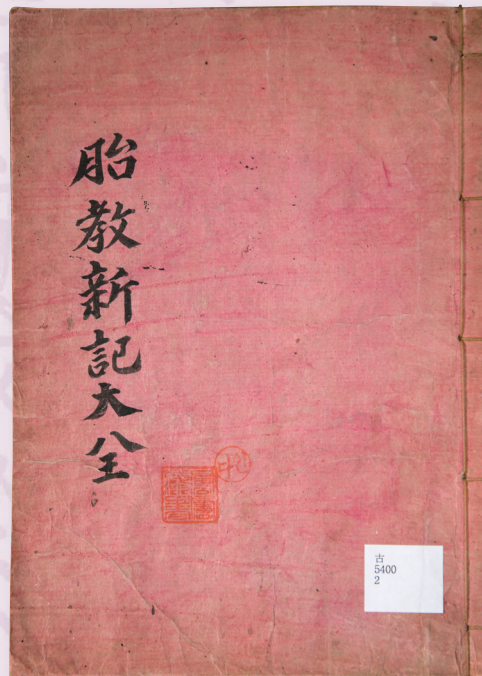




## &lt;태교신기장구대전&gt;

## 이사주당

(1739~182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lt;태교신기장구대전&gt;.

조선시대 여성이 쓴  
최초의 태교서

임신을 계획하거나 임신한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태교’라는 것에 관심을 두거나 태교에 힘쓴 경험이 있을 것이다. 태교는 임신부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하여 말과 행동, 마음가짐 등을 조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행해졌던 태중 교육이다. 서양에서는 1960년대에 등장한 초음파 검사법으로 태아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게 되면서 비로소 태중 교육 방법인 태교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글 김경미 사진 국립중앙도서관

## 이사주당(李師朱堂)은 누구인가?

조선시대에는 태교 관련 문헌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남성들에 의해 쓰여지거나 책의 일부에서 태교를 언급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사주당(李師朱堂)의 <태교신기(胎敎新記)>는 아이를 낳고 양육한 경험과 박학한 지식을 기반으로 태교만을 다루고 있는 최초의 유일한 태교 전문서이며, 태교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저술서이다. 이 책을 쓴 이사주당은 아버지 이창식과 어머니 진주 강씨 사이에서 2남 5녀 가운데 여섯째로 청주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유학의 경서(經書)를 두루 읽어 경전의 가르침을 깊고 명확하게 깨달았으며,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깊고 바른 성품과 덕행을 두루 겸비하였다. 부친의 3년상과 넉넉지 않은 가세로 늦은 나이에 유한규(柳漢奎)와 혼인하여 슬하에 1남 3녀를 두었다. 이사주당은 혼인 후에도 남편과 학문의 심오한 이치를 토론하고 배우며 부부 사이를 넘어 학문적 동반자로 살았다.

이사주당의 처음 당호는 희현(希賢)으로 ‘어진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이었으나, 후에 사주(師朱)로 바꾸었다. 당호인 사주당(師朱堂)은 성리학의 집대성자인 ‘주희(朱熹)를 스승으로 삼아 본받는다’는 의미이다. 그의 당호에서 알 수 있듯 이사주당은 주자의 성리학을 배우고 학문을 계승하여 자신의 학문 요체로 삼았으며, 뛰어난 학식과 풍부한 소양을 가지고 있었다. 이사주당은 자신이 쓴 글 중 오직 <태교신기>만을 후세에 남겼다. 그는 당시 임신부들이 태교에 무지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글로 전하여 태교의 개념과 실천 방법을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lt;태교신기장구대전&gt; 내지.

## | 김경미 |

성균관대학교 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유학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수석강사이며, 현재 성균관대학교에서 전통예절과 인성교육, 고전을 강의하고 있다. 역서로는 <태교신기>, 저서로는 <모태미인, 태교의 비밀>, <영화, 차를 말하다> 등이 있다.





<태교신기> 역서.

<태교신기>와 <태교신기장구대전(胎敎新記章句大全)>

이사주당은 자신의 네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예절(禮節), 임신부가 피해야 하는 일, 그리고 어린아이를 가르칠 만한 구절을 언문으로 해석하여 책을 만들었다. 남편 유한규는 그 책의 제목을 <교자집요(敎子輯要)>라 이름지었다. 이 책은 이사주당이 자녀를 기르면서 사용하고 잊혀졌다 20여 년이 지나 막내딸이 가지고 있던 상자에서 발견되었다. 이 책을 다시 보게 된 이사주당은 “이 책은 스스로 반성하기 위하여 지은 것이지 후세에 남기려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 오직 태교에 대한 글이 없어진 지 오래되어 부인들이 스스로 깨달아 행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참으로 걱정이 된다”라고 하며 옛날의 태교 방법이 글로 전해지지 못해 임신부들이 태교를 실천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였다. 그래서 끊어진 태교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교자집요> 중 태교의 내용과 경전의 가르침, 성현의 예법, 의학 내용을 정리하여 <태교신기>를 완성하였다.

<태교신기>는 1800년 이사주당이 62세 되던 해에 한문으로 완성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사주당의 한문본 <태교신기>는 전하지 않는다. 오늘날 전하는 <태교신기>는 이사주당의 아들 유희(柳僖)가 1년 동안 어머니의 한문본 <태교신기>를 10장 35절로 나누고, 한글로 풀이하여 1801년(순조 1년) 완성한 <태교신기장구대전>과 <태교신기장구언해(胎敎新記章句諺解)>이다. <태교신기장구대전>은 인간 성품의 근원과 기질의 형성부터 태교의 필요성, 태교의 구체적 실천 방법, 태교의 근본, 태교의 효과, 태교의 실제 사례 등을 10개의 장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으며, <태교신기장구언해>는 한문으로 쓰여진 내용을 당시 여성들이 읽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음과 뜻을 해석하여 한글로 풀이한 것이다.



경기도 용인시에 조성된 태교 숲길과 <태교신기>에 대한 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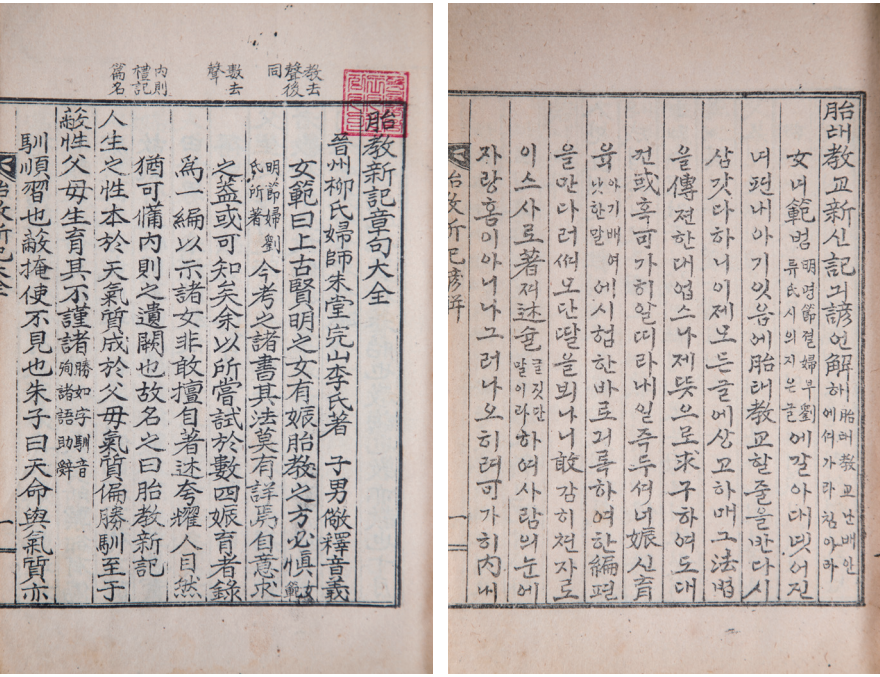
이사주당 묘역.(출처 : 용인시청)

# 태교신기장구대전

<태교신기장구대전>은 수고본(手稿本, 저자가 손수 쓴 원고로 만든 책)과 석인본(石印本, 석판인쇄로 만든 책)의 두 가지 판본이 전해지고 있다. 수고본은 유희가 장(章)을 나누고 주석을 달아 우리말로 음과 해석을 붙인 것으로, 현재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에 소장되어 있다. 석인본은 1938년 유희의 증손인 유근영(柳近永)이 경북 예천에서 수고본(手稿本)을 저본(底本, 초본)으로 하여 간행한 것으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 소장되어 있다. 수고본은 신작(申綽)의 <태교신기서(胎敎新記序)>, <태교신기장구대전>, 유희의 발문, <태교신기언해(胎敎新記諺解)>, 유근영의 발문, 정인보(鄭寅普)의 <태교신기음의서략(胎敎新記音義序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인본은 수고본의 내용에 신작의 <사주당이씨부인묘지명병서(師朱堂李氏夫人墓誌銘并序)>와 이사주당의 큰딸과 작은딸, 그리고 권상규(權相圭), 이충호(李忠鎬), 권두식(權斗植)의 발문(跋文)이 추가되어 있다.

이사주당의 태교서가 전하는 현대적 의미

<태교신기장구대전>은 일반 태교 교훈서와 다른 독특한 특성과 현대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부성 태교에 대한 강조이다. 일반적으로 태교는 임신부가 해야 하는 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사주당은 “아버지 하루 정심(하루 씨 내림)은 자식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며 또한 자식의 운명을 결정지어 자식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라 강조하며 아버지 태교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두 번째는 가족 모두가 동참하는 태교이다. 임신부가 항상 마음 편안한 환경을 갖도록 부부와 가족이 함께 노력하는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세 번째는 임신부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여 배안의 태아를 기르는 태교이다. 오늘날 태교는 주로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중시한다.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착한 마음으로 집중하고 깨어 있는 삶을 살며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려는 바른 마음가짐의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 태교는 부모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 태아의 몸과 마음 변화를 꾀하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변화가 태아의 변화로 이루어진다는 이사주당의 <태교신기장구대전>을 통해 우리는 태교가 태아를 교육시키는 것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교육시키는 활동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❶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태교신기장구대전> 내지.



## 사서와 함께 떠나는 독서 여행

글 국립중앙도서관 사진 각 출판사

### • 한국판타지 문학

나는 그런 이야기가 처음 발생한 순간이 궁금하다. (종략) 구미호 누이 전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지어낸 것인지, 아니면 그 발단이 된 사건이 있었는지? 왜 우리는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하는 데 만족하지 않는지? (367쪽)



### 은하환담

곽재식, 김설아, 김성일, 이경희, 소렐, 송경아, 이한, 문녹주, 전해진 지음  
달다 | 2022

### 사서의 추천 글

제주 김녕굴 설화, 백두산 전설, 선녀와 나무꾼, 견우와 직녀, 여우 누이, 천지 속의 용궁, 다자구 할머니 이야기가 현대 판타지의 옷을 입고 나왔다. <은하환담>은 아홉 작가의 한국 설화 앤솔러지로, 어릴 때부터 접해 온 우리나라 옛이야기, 신화, 전설, 민담 등이 이 시대 이야기꾼들의 기발한 상상력으로 다시 태어난 책이다. SF를 연상시키는 ‘은하’와 판타지를 연상시키는 ‘환담’이 만났으니 한국판 전통 설화 SF 판타지라고도 할 수 있겠다. 전통 설화와 SF 판타지라니, 얼핏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는데 기막히게 조화롭다. 익숙한 이야기를 낯선 느낌으로 읽어가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모티브인지 궁금해 찾아보게 된다. 원전과 비교하면 읽는 재미를 더할 수 있다. 구전 설화에 ‘새로운 목소리를 입혀’ 들려주는 이야기주머니 같은 책이다.

### 은 저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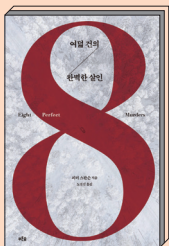
**곽재식**(충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소설가), **김설아**(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석사과정 수료, 장편소설 <공작새에게 먹이 주는 소녀>), **김성일**(SF·판타지 소설가, 도서출판 초여명의 편집장, 장편소설 <넌 만나러 지구로 갈게>), **이경희**(SF 소설가, 장편소설 <테세우스의 배>), **소렐**(대표작 로맨스 판타지 소설 <금빛 매는 솔프리를 붙잡았다>), **송경아**(소설가이자 번역가, 소설집 <백귀야행>), **이한**(역사 전공, 저서 <조선기담>), **문녹주**(단편집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전해진**(만화·웹툰 스토리 작업과 소설 집필 병행, 장편소설 <280일>)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알아두면 재난 척하기 딱 좋은 설화와 기담사전> 이상화 | 2020  
<1일 1페이지 조선사 365> 유정호 | 2021  
<고전, 발견의 기쁨> 정민 | 2022

### • 미국판타지 문학

왜 우리는 매사에 리스트를 만들려고 할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리스트를 작성하게 할까? (종략) 어릴 때는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다. (종략) 하지만 내가 궁금한 점은 왜 아직도 리스트를 계속 작성하냐는 것이다. (73쪽)



### 여덟 건의 완벽한 살인

피터 스완슨 지음  
노진선 옮김 | 푸른숲 | 2022

### 사서의 추천 글

책 읽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이번 가을에는 여름에 적합한 장르라는 편견을 잠시 내려놓고, 책 읽는 재미를 알려줄 추리소설 한 권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맬빈 커쇼는 추리소설 전문 서점을 운영하지만 주로 역사책을 읽고 자기 전에는 시를 즐기는 평범한 주인공이다. 그는 오래전 서점 블로그에 범죄소설 역사상 가장 똑똑하고 독창적이며 실패할 염려가 없는 살인 리스트를 뽑은 ‘여덟 건의 완벽한 살인’이라는 글을 썼다. FBI로부터 그 ‘리스트’에 따라 살인을 저지르는 사이코가 있다는 의심을 받으며 소설은 시작된다. 추리소설의 고전들에서 단서를 찾아가며 이야기는 마치 씨실과 날실이 엮이듯이 현재의 사건과 연결되고, 주인공과 함께 범인을 뒤쫓는 재미를 알아가려는 순간, 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독자라면 당연히, 추리소설을 즐겨 읽는 독자가 아니더라도, 좋아할 만하다.

### 은 저자 소개 - 피터 스완슨(Peter Swanson)

<죽여 마땅한 사람들>로 뉴잉글랜드소사이터티어워드와 영국범죄작가협회에서 매년 최고의 스릴러 부문에 주는 CWA 이안플레밍스틸대거를, <312호>에는 303호 여자가 보인다>로 NPR 올해의 책을 수상하였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살인자의 기억법> 김영하 | 2020  
<죽여 마땅한 사람들> 피터 스완슨 | 2016  
<열차 안의 낯선 자들> 퍼트리샤 하이스미스 | 2015

### • 인문예술

빨랫줄에 널린 빨래가 바로 그랬다. 빨래는 바깥 공기를 맞으며 주변의 냄새, 한 조각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날의 날씨로 가득 부풀어 오른다. (85쪽)



### 코끝의 언어

주드 스튜어트 지음  
김은영 옮김 | 월북 | 2022

### 사서의 추천 글

인간 몸속의 시각 수용기는 4개인 반면 후각 수용기는 400개 이상으로 냄새를 어떻게 감지하는지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며, 냄새를 수치화하거나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 책의 작가는 냄새와 후각의 신비로운 세계에 호기심을 가지고 방대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일상의 냄새를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다. 읽다 보면 향기가 주변을 감싸는 듯한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냄새 5가지를 10가지로 분류하여 각 냄새와 관련한 내용을 역사, 과학, 사회, 문화, 지리, 예술 등의 영역에서 다양하고 폭넓게 다루고 있어 읽을거리가 다채롭다. 이 책을 읽으며 당신의 코가 기억하는 냄새를 발견하고 세상을 새롭게 감각해 보길 바란다.

### 은 저자 소개 - 주드 스튜어트(Jude Stewart)

디자인 전문 작가에서 우연한 계기로 후각이라는 감각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서 냄새에 관한 이야기를 탐험하며 독자들에게 후각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감각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이 책을 썼다. 저서로는 <무지개에는 왜 갈색이 없을까?>, <패터널리아>가 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마음을 움직이는 향기의 힘> 로베르트 뮐러 그뤼노브 | 2020  
<냄새의 심리학> 베티나 파우제 | 2021  
<후각과 환상> 한태희 | 2021

### • 인문예술

공저자들이 들려주는 도시 이야기는 11개의 나라에 수백 수천의 언어와 문화가 공존하는 동남아시아처럼 다채롭고 풍요롭다. (308쪽)



### 도시로 보는 동남아시아사

강희정, 김종호, 신윤환, 이한우, 정정훈, 현시내 지음  
사우 | 2022

### 사서의 추천 글

전공 분야가 서로 다른 6명의 학자들이 동남아시아 역사 여행 가이드로 나섰다? 저자들은 자신이 전공한 지식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라오스, 태국, 베트남 7개 나라에서 고른 13개 도시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역사를 들려준다. 고양이가 많아 ‘고양이의 도시’로 불리는 말레이시아 쿠칭은 인근 싱가포르 섬이 영국 동인도회사에 의해 자유무역항으로 개발되면서 도시로서의 역사가 시작된다. 또 다른 도시 족자카르타는 도시 곳곳에서 자바의 전통문화를 엿볼 수 있어 ‘인도네시아의 숨은 보석’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낯선 도시들을 흥미로운 지명 유래와 생생한 사진을 곁들여 친절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서구 열강의 식민주의 아래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까지 알차게 담고 있어 추천한다.

### 은 저자 소개

**강희정**(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아시아 미술사 전공), **김종호**(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조교수. 인도네시아 화인사 전공), **신윤환**(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동남아 정치 전공), **이한우**(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조교수. 베트남 정치 전공), **정정훈**(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교수. 인도네시아 인류학 전공), **현시내**(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교수. 태국 정치사 전공)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키워드 동남아> 강희정, 김종호 외 | 2022  
<동남아시아 한인> 김지훈 외 | 2022  
<화교 이야기> 김종호 | 2021



## • 사회과학

우리는 메시지와 알림으로 끊임없이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중략) 우리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멈추고는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채팅을 하거나 소셜 미디어를 확인한다는 것을 연구로 밝혀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 없이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74~75쪽)



## 8초 인류

리사 이오티 지음  
이소영 옮김 |  
미래의창 | 2022

## 사서의 추천 글

현대인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심각하다. 아침 알람을 시작으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우리는 스마트폰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평균 시간이 8초라고 한다. 기사를 읽을 때, 영화를 볼 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8초가 지나면 집중력을 잃는다. 이 책은 우리의 뇌가 8초밖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와 심각성을 알려준다. 스마트폰이 주는 편리함에 익숙해지다 못해 점점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해 가는 인류, 저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디지털 단식’을 제시한다. 스마트폰 중독 증세를 잠깐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산만함의 원인인 스마트폰의 부작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디지털 기기로부터의 ‘잠깐 멈춤’이 필요하다는 작가의 말에 귀 기울여보자.

## 👤 저자 소개 - 리사 이오티(Lisa Iotti)

1970년생으로 볼로냐대학교에서 인문학을 전공했다. 미술사 분야와 지역 언론에서 경험을 쌓은 뒤, TV 장르인 다큐픽션 및 탐사보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채널 Rai3의 프로그램 <프레자디렐타>에서 일하고 있다. 특집 보도한 ‘하이퍼커넥션’으로 2021년 고프레도 파리세(Goffredo Parise) 언론인 상을 수상했다.

##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감정과 미디어> 나은영 | 2021  
<이럴 거면 혼자 살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최민지 | 2022  
<마을의 진화> 간다 세이지 | 2020

## • 사회과학

디지털 세계에서 새로운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Z와 함께 가야 이 무브먼트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파도 아래에서 일어나는 무브먼트는 올라타지 않으면 존재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29쪽)



## Z의 스마트폰

박준영 지음  
쌤애파커스 | 2022

## 사서의 추천 글

Z세대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소비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세대를 이르는 말이다. 이 책은 스마트폰이라는 프라이빗한 공간을 보며 Z세대의 사고방식, 소통 방식, 소비 패턴 등 기존 세대와는 전혀 다른 그들의 세계를 기록하고 있다. ‘Z의 손가락 끝에 ‘시장의 열쇠’가 있다’, ‘Z의 진심이 향하는 곳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 ‘Z가 만들어낸 세상 속에 ‘다음 세계’가 있다’의 3개 파트에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80개의 앱을 11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분석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연결된 디지털 세계에서 Z세대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빠짐없이 보여준다. 이 책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새로운 세대와의 이해와 존중, 진정성 있는 소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 저자 소개 - 박준영

크로스IMC 대표. 분야별 경계를 넘나드는 브랜드 기획자이자 마케터.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본질을 통찰하여 브랜드와 연결한다. 현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융합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컨버티드 : 마음을 훔치는 데이터분석의 기술> 닐 호인 | 2022  
<제트코노미> 제이슨 도시, 더니스 빌라 | 2021  
<디지털로 생각하라> 신동훈, 이승윤, 이민우 | 2021

## • 자연과학

옛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이 어떤 정도의 과학기술을 갖고 있는 시대를 살았는지 이해하면 그 인물들이 겪었던 감정을 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된다. (11쪽)



## 화성 탐사선을 탄 걸리버

곽재식 지음  
문학수첩 | 2022

## 사서의 추천 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문과형 뇌’와 ‘이과형 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문과와 이과를, 문학과 과학을 별개의 것처럼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일까? 이 책은 그런 의문을 제기하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 세계 고전 13편에 담긴 당대의 과학과 기술을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게 소개한다. 5천 년 전 <길가메시 서사시>부터 조선 중기 허균의 <망처숙부인김씨행장>, 21세기 SF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넘나들며 선별한 문학작품 속에 담긴 역사적, 과학적 배경과 인물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렇게 저자가 술술 전하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화약이나 증기기관과 같이 역사 저편의 옛 기술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알고리즘 등 현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과학적 이슈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

## 👤 저자 소개 - 곽재식

공학박사, 교수, SF 소설가, 작가, 방송인. 2006년 단편 ‘토끼의 아리아’가 MBC TV에서 영상화된 이후 소설가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곽재식의 고전 유람>, <지구는 관찰야, 우리가 문제지>, <곽재식의 먹는 화학 이야기> 등이 있다.

##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딜리셔스> 톱 던, 모니카 산체스 | 2022  
<역사가 묻고 화학이 답하다> 장홍제 | 2022  
<주기율표로 세상을 읽다> 요시다 다카요시 | 2017

## • 자연과학

기초과학으로서 가치가 있는 발견은 폭넓은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많은 과학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기초과학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발견이야말로 긴 안목으로 봤을 때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308쪽)



## 소년은 어떻게 과학자가 되었나

오구리 히로시 지음  
고선윤 옮김 |  
바다출판사 | 2022

## 사서의 추천 글

돈이 되지 않는 것은 외면하는 시장논리에 기초과학이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한 이론물리학자가 자신이 걸어온 여정을 담담하게 펼쳐 보인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서 이론물리학을 연구하는 저자 오구리 히로시는 “재밌는 걸 하고 싶었다”며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고 말한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빌딩 전망대 레스토랑에서 먼 지평선까지의 거리를 기하학을 통해 계산했던 것을 자신의 최초 과학적 탐구 중 하나로 회상한다. 과학뿐 아니라 수학, 철학, 역사 등 다방면의 책을 섭렵하던 소년은 생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아 교토대학교 이학부에 진학한다. 대학원에 진학하며 연구자가 된 저자는 무려 20여 년에 걸쳐 초끈이론의 응용이자 현재 수학과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BCOV 이론을 탄생시킨다. 저자는 연구자의 태도로 ‘문제를 찾는 힘’, ‘문제를 푸는 힘’, ‘끈기 있게 생각하는 힘’ 세 가지를 언급한다. 그가 과학자가 되어 기초과학을 키우는 데 기울었던 노력과 과정을 회상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기초과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 👤 저자 소개 - 오구리 히로시(大栗博司)

이론물리학자로 양자장론과 양자 중력이론, 초끈이론의 수학적 구조를 연구하여 물리학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론적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카를리칸 교수이자 월터 버크 이론 물리학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수학의 언어로 세상을 본다면> 오구리 히로시 | 2017  
<그렇게 물리학자가 되었다> 김영기 외 | 2022  
<퀀텀 라이프> 하킴 올루세이, 조슈아 호위츠 | 2022



구선아 책방 대표와

광명시 하안도서관

## 안녕하세요, 도서관의 단골입니다



구선아

읽고 쓰고 말하는 삶을 살며, 독립책방 '책방 연희'를 운영한다. 무료 뉴스레터 <책 읽다가 절교할 뻔>을 발행 중이며, <일상생활자의 작가 되는 법>과 <때론 대충 살고 가끔은 완벽하게 살아>, <퇴근 후, 동네 책방> 등 몇 권의 책을 썼고 <꽃의 파리행>, <이상의 도쿄행> 등 몇 권의 책을 엮었다.

나에게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나는 책방이라고 답할까, 도서관이라고 답할까? 어느 날엔 “도서관이요”라고 툼 없이 대답할지 모른다. 그리고 누군가가 “책방 운영자가 왜 도서관이 좋나요?” 묻는다면 “세상엔 좋은 책,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으니까요”라고 말할 것이다.

글 구선아 사진 구선아, 광명시 하안도서관



1

### 단골 도서관과의 첫 만남

바야흐로 10년 전, 짙은 겨울이 막 지난 때였다. “앞에 서주시고요. 사진 찍겠습니다.” 찰칵. 곧 이사 오게 될 동네의 도서관을 찾아 회원증을 만들었다. 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던 나는 옷을 가벼이 하고 사진을 찍었다. “여기 있습니다.” 바람에 휘날려 엉클어진 앞머리, 어색한 입꼬리, 한껏 웅크린 어깨. 웃는 듯 웃지 않는 나를 닮은 얼굴이 박제된 카드를 받았다. 카드엔 ‘광명시 하안도서관’이라 적혀 있었다. 회원증을 들고 처음 열람실에 가고 구내식당 밥을 먹고 책 몇 권을 빌렸다. 빌린 몇 권의 책은 한 달간 나의 근사한 출퇴근 친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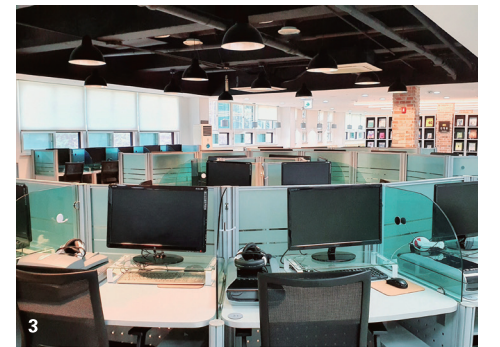
어릴 적 참 많이 이사했다. 주소나 동네를 다 기억하지 못하고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 몇 장이 넘어간다. 동네 서점에서 책을 사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던 기억은 고스란히 남아 있지만, 나에게 단골 서점이나 단골 도서관이 없는 이유다. 점심을 거르고 틀어박혀 있던 고등학교 도서관과 각종 자격증과 시험 준비로 들락거렸던 대학교와 대학원의 도서관, 회사 생활 동안 가장 좋아했던 사내 자료실. 나의 도서관 추억은 평범하기 이를 데 없다. 그 흔한 연애나 일탈 이야깃거리, 감동적인 이야기는 찾기 힘들다. 그래도 나의 생애 중간중간 도서관이 빠지지 않는다.

책방 운영자가 되고 작가로 활동하면서 시설 좋고 예쁘다는 숲속 도서관, 한옥 도서관, 제주 도서관, 해외 도시의 도서관과 책방 인근에 있는 여러 도서관을 씬 없이 찾았다. 웅장한 자태와 엄숙한 분위기, 때론 오두막 같은 아늑한 도서관을 만나기도 하고, 응원이 나 영감을 얻은 다정한 곳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 여러 이유로 나의 단골 도서관이 되진 못했다.

단골은 ‘늘 정하여 놓고 거래를 하는 곳’을 의미한다. 단골 도서관이란 나에게 늘 정하여 놓고 거래, 즉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공부



2



1. 2층까지 탁 트인 공간과 조명이 인상적인 1층 로비 모습.
2. 1층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독서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다.
3. 최신 디지털 장비를 갖춘 3층 디지털자료실.

하러 가는 도서관이다. 돌이켜보니 나도 모르게 나에게 이미 단골 도서관이 있었다. 나의 읽고 쓰는 생활 곳곳에 이미 자리해 있던 도서관이다. 나에게 단골 도서관이라니. 이는 한 동네에 오래 살며 정착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니와, 읽고 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명이기도 하다.

내가 하안도서관에 자주 가는 걸 아는 지인은 우스갯소리로 말한다. “이력서라도 들고 가서 자기소개라도 해요”, “상주 작가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텐데요”. 도서관에서 나를 단골로 알아주지 않아도 된다. 하안도서관은 ‘나의 단골 도서관’이라는 마음만으로도 느슨한 연대감을 갖게 한다. 그리고 상주 작가가 별건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상주하고 있으면 상주 작가지.

### 나의 도서관 사용법

하안도서관은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정문으로 나와 걸으면 금세 도착한다. 마치 방문을 열고 나가면 존재하는 나의 커다란 서재랄까. 커다란 생각이나 무거운 짐을 챙기지 않아도 된다. 내 일상인 한 모퉁이에 언제나 서 있으니. 읽고 쓸 마음만 가져가면 된다. 마음을 챙겨 가는 길은 참 명랑하다.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 노인회관이나 운동센터를 찾아가시는 어르신들을 한 번에 마주한다. 가끔은 흐린 기분으로 집을 나서기도 하는데 이 재잘거림이 쏟아지는 길을 걸으면 마음도 명랑해진다.

처음 도서관을 찾았을 당시 난 광고대행사 6년 차 직장인이었다. 다독가는 아니었지만, 애서가였고 직장 생활 틈틈이 여러 매체에 기고를 했다. 온라인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도서 구매량도 꽤 많은 열혈 책 소비자였다. 휴일이나 휴식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내기 위해 종종 찾았고, 책을 보다 산책하기 좋아 연휴에도 곧잘 들렀다.



그리고 직장인 9년 차에 첫 책을 출간했고, 10년 차에 퇴사, 독립 서점을 창업했다. 도시사회학 박사과정을 함께 시작했기에 독서나 글쓰기가 아닌 공부를 위해서도 도서관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읽고 쓰는 삶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도서관을 찾는 횟수는 더 많아졌다.

도서관이 리모델링하면서 문을 닫은 기간 동안 동네 카페와 인근 타 도서관을 다녔지만, 알맞지 않았다. 날씨와 계절에 따라 넓은 열람실로 들어오는 햇빛이라던가, 구내식당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편리함이라던가, 특히 도서 열람실이 넓고 책을 찾기 쉬운 용이함을 따라 주지 못했다. 간혹 어떤 도서관은 도서 분류에 따라 층이 달라 책을 찾아야 할 때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동선이 긴 곳이 있다. 도서관의 장로나 분류보다 키워드로 맥락적 읽기를 하는 나에게 책 찾기는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단골이기에 아는 익숙함이 좋고 익숙하기에 보이는 재밌는 장면 찾기가 즐겁다. 내가 자주 찾는 분류나 작가의 책이 서가의 어디쯤 있다는 것이나, 구내식당 메뉴는 어느 요일이 내 입맛에 맞는다는 것, 어느 자리가 햇빛이 좋다는 것 말고도 도서관에서 마주할 때마다 똑같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며칠째 같은 책을 읽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무 책이나 한 권 꺼내놓고 종일 핸드폰만 보다가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몇 년째 같은 자격증 수험서를 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장면들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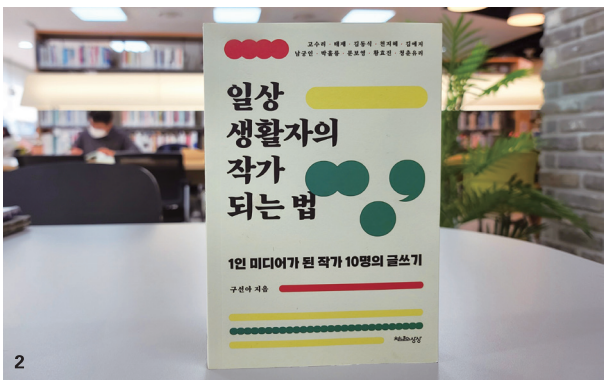
### 읽고 쓰는 경험과 맞닿은 장소

도서관은 책방과는 매우 다르다. 책의 목적과 기능, 소비 방식은 물론 독자가 다르고 공간을 찾는 사용자가 다르다. 나의 읽고 쓰는 일도 쪼개고 쪼개면 도서관과 책방에서 하는 일과 마음이 다를 것이다. 사실 나의 글쓰기 시작은 책방이지만, 글쓰기의 시간은 언제나 도서관에서 단단해졌다. 첫 책을 출간한 지 6년이 되었고 6년 차 책방 운영자가 되었다. 그간 몇 권의 책을 출간하고 몇 권의 책을 읽고 몇 편의 논문을 쓰며, 몇 번이나 도서관을 들락날락했는지 셀 수 없다. 최근 출간한 인터뷰집 <일상생활자의 작가 되는 법>도 이곳에서 인터뷰 질문을 만들고 모든 교정을 마쳤다.

이젠 읽고 쓰는 내 생활에 있어 집, 책방을 제외하고 단연 가장 많이 찾는 고정된 장소다. 지리학자 이푸투안은 “공간이 우리에게 완전히 익숙해졌다고 느낄 때, 공간은 장소가 된다”라고 말했다. 공간에서 개인의 경험이 기억과 시간에 의해 쌓임에 따라 장소가 된다. 사실 도서관과 같은 사회적 생산물은 지배와 권력, 통제에 수반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공간을 사용하는 개인에 의해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가 말하는 재현 공간(representational space)이 되기도 한다. 개인에게 특정한 경험을 선사하는 장소성을 가진 장소는 부정형적인 특성을 가지며 단순한 물리적 공간과 구별되는 것이다. 이렇게 책만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장소도 사람을 만든다. 나를 만든 건 읽고 쓰는 일이 8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1. 1층 어린이자료실의 서가와 테이블 공간.
2. 하안도서관에서 작업한 구선아 대표의 인터뷰집 <일상생활자의 작가 되는 법>.
3. 주제 분야별 도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2층 종합자료실.
4. 구선아 대표는 종종 아이와 함께 하안도서관을 방문하곤 한다.



장소가 8할의 모두라는 생각도 든다. 읽고 쓰는 일은 모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누군가와 얻은 경험이므로, 나의 읽고 쓰고 말하는 일의 모두가 될 수도 있겠다.

### 앞으로 도서관과 나

이제 난 내 아이의 손을 잡고 종종 도서관에 들른다. 아이는 아직 문자는 읽지 못해도 자신이 좋아하는 책이 도서관에 있다는 것은 안다. 책을 읽는 아이의 모습이 신기하다. 아이에게 책과 함께 시작하는 인생 같은 거창한 걸 바라지 않는다. 세상의 많은 장소를 경험하고 감각하길 바랄 뿐. 나의 아이도 나처럼 이 도서관에서 성장하고 몇 번의 변화를 겪게 되겠지. 난 앞으로 내 아이의 손을 잡고 몇 번이나 이 도서관에 오게 될까. 함께 책을 읽고, 방학 숙제를 하고, 시험공부를 하고, 일기도 쓰고. 아,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이다. ㉠



### 광명시 하안도서관

1993년 광명시 최초의 공공도서관으로 개관한 하안도서관은 2020년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문을 열었다. 토론하며 학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확장하고 개방형 창의열람실 및 게임창작소를 조성하였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시민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 📍 위치 : 경기도 광명시 철망산로 46(하안동)
- ☎ 전화 : 02-2680-2871
- 🕒 운영 시간 :
  - 자료실(평일) 어린이자료실 오전 9시~오후 6시
  - 종합자료실 오전 9시~오후 10시
  - 디지털자료실·게임창작소 오전 9시~오후 8시
  - 모든 자료실(주말) 오전 9시~오후 5시
  - 열람실(평일·주말) 오전 7시~오후 11시
- 📅 휴관일 : 매주 금요일 및 법정 공휴일





## 지극히 개인적인 공공을 위한 도서관

### 스웨덴 도서관

글 김윤아 사진 위키피디아, shutterstock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북유럽 공동체 문화 ‘안테의 법칙(The Law of Jante)’ 1항 내용이다. 그러나 누구도 특별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의 특별함을 역설한다. 개인의 가치와 소수 집단의 권리를 일깨우는 곳. 스웨덴 도서관은 지난 2014년 1월 새로운 「도서관법」을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한 공공도서관’을 위하여 장애인과 이주민,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발표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평범한 공간이 되길 바라는 스웨덴의 도서관을 만나본다.

1. 3층 규모의 원형 홀 형태인 메인 열람실 로툰다(rotunda)의 내부.
2. 스톡홀름 공공도서관 외관 모습.

김윤아

뉴욕, 런던, 파리, 리스본, 시카고 등 50여 곳의 해외 서점을 탐방한 기록을 담은 책 <서점 여행자의 노트>를 썼다. 다수의 매거진에 서점 여행을 주제로 한 칼럼을 기고했다. 종로의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사진과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전시한다.

# STOCKHOLM PUBLIC LIBRARY

0	1
Stockholm Public Library	

### 많은 책 너머 모든 책을 만나다

#### 스톡홀름 공공도서관

스웨덴은 책과 도서관의 나라다. OECD가 발표한 독서율이나 공공도서관 이용 현황 등에서 언제나 상위권을 차지하며, 독일의 통계 회사 스타티스타(Statista)는 스웨덴 인구의 절반은 매일 책을 읽는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나라에서 매력적인 도서관을 찾기는 어렵지 않지만,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곳은 있다. <허핑턴포스트>를 비롯한 글로벌 매체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앞다투어 선정하고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건축물 1001>에도 등재된 스톡홀름 공공도서관(Stockholm Public Library)이다. 외관은 수수하다. 3층 규모의 높이, 화려한 장식이나 독특한 구조가 아닌 사각형 건물은 가운데 원통만이 그 단순함을 은은히 보완한다. 도서관은 담백하고 명료하게 추구하는 바를 드러낸다. 모든 이에게 편하고 친근한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스웨덴 최초의 공공도서관은 1928년 개관했다.

스웨덴 최고의 건축가 군나르 아스플룬드(Gunnar Asplund)가 설계를 맡았다. 당시로는 새로운 개념이었던 공공도서관이라는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아스플룬드는 사서와 함께 미국의 주요 도시와 도서관을 탐방했다. 그리고 전례 없던 사례를 만들어갔다. 모든 책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직접 꺼낼 수 있는 곳. 모든 이가 같은 공간을 사유하며, 학습할 수 있는 곳. 스웨덴 최초 개가식 도서관의 탄생이었다.







1. 스웨덴 작가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 동상이 서가 앞에 전시되어 있다.

도서관 입구로 들어서면 계단을 마주한다. 왼쪽은 어린이실, 오른쪽은 구내 서점과 카페로 연결되며, 정중앙 계단으로 올라서면 메인 열람실 로툰다(rotunda)가 나타난다. 로툰다는 도서관의 핵심 장소로, 유리 천장을 투과하는 햇빛 아래 책으로 가득히 채워진 벽면이 360도로 펼쳐지는 거대한 원형 홀이다. 3층 규모가 그대로 트인 공간은 높이 24m, 지름 26m에 달하는데 책들이 곧 벽면과 복도가 되며 길이 된다. 중간중간 세면대와 건물 모양의 소파, 오래된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고 1층 가운데에서는 독서 모임, 북 토크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도서관은 200만 권 이상의 책과 240만 개의 미디어 콘텐츠를 소장하고 있지만, 그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100개 이상의 언어로 구성된 국제 도서실이다. 도서관은 스웨덴어 수업과 별도로 모국어로 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한다. 또한 스웨덴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이들을 배려, 이민자는 물론 난민을 위한 정보와 교육도 제공한다.

도서관의 또 다른 매력은 어린이 자료실에 있다. 도서관을 통틀어 가장 훌륭한 가구와 예술품이 놓인 곳에는, 80여 개국의 동화책과 점자책, 장난감 등이 다채롭게 구비되어 있고 낭독 행사와 인형극이 수시로 진행된다. 무엇보다 공간의 가치는 어린이를 조망하는 데 있다. 지난해 도서관은 ‘미션 : 북스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작가, 기획자, 엔지니어 모두 어린이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최근 도서관은 스톡홀름시 공공도서관 40여 곳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했다. 한 도시가 나누는 여러 대화에 동참하게 하는 도서관은 “누구든 쉽게 찾아올 수 있고, 각자에 어울리는 성장 기회를 누리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 도서관은 개인의 역할과 소수의 가치를 인정한다. 이는 스웨덴 도서관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누구나 도서관에 갈 수 없었던 시대, 사람들은 종교, 철학, 노동,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독서 모임으

로 학습과 성장을 도모했다. 독서 모임이 문화의 한 축이 되며, 정부는 1912년 독서 활동과 학습 모임을 지원하는 「민중도서관지원법」을 제정하는 데에 이르렀다. 공간이 아니라 사람에서 출발해 온, 나아가 개인의 자립을 고취해 온 도서관은 지금도 모든 시민의 곁에 있다.

0	2
City Library of Malmö	

## 도시의 일상 너머 도시의 이상을 비추다

### 말뫼 시립도서관

‘빛의 달력’이라는 이름으로 눈부신 곳. 4층 높이에 이르는 통유리 창으로 쏟아지는 것은 햇빛만이 아니다. 계절의 흐름, 공원의 풍경, 시민의 일상까지 도서관은 말뫼라는 도시를 비춰낸다. 말뫼 시립도서관(City Library of Malmö)이 현재에 이른 모습은 도시의 성장을 반영한다. 1905년 메이페어 호텔 튜넬른(Mayfair Hotel Tunneln)에서 3096권의 책을 구비하고 개관한 이래 1946년 현재 위치의 성(Castle)으로 이전되었다. 이후 1990년 오래된 성을 보완하고, 새롭게 두 건물을 지으며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전통 조선업의 도시였던 말뫼는 산업이 쇠퇴하며 1990년대 실업률이 20%까지 치솟았고, 시민의 상당수가 도시를 이탈했다. 말뫼는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우리가 바라는 시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조선소 부지에 말뫼대학교가 들어서고,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과 연결되는 7.8km 외레순 대교가 개통됐으며, 대규모로 설립된 창업 센터가 세계의 청년을 불러들이며 지식 기반 도시로 변화했다. 현재 말뫼는 인구의 절반이 젊은 층으로, 150개 언어가 통용되는 국제도시로 우뚝 섰다.

책으로 가득하던 오래된 성은 다양한 좌석을 갖춘 학습 공간이 되었고, 신관에서는 음악, 영화, 게임,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와 문화 행사를 제공한다. 두 곳을 연결하는 원형 건물은 안내 시설과 카페를 갖추었고, 회전문 입구에는 세계 각국 언어로 도서관을 뜻하는 말이 적혀 있다. 말뫼가 바라는 모습을 담아낸 도서관은 스웨덴 건축상과 올해의 도서관을 비롯해 말뫼시 통합상, 그리고 성소수자(LGBTQ) 인증\*을 받은 스웨덴 최초의 도서관으로 선정되며, 그 역할과 독보적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도서관은 확 트여 있어 전면 유리창으로 외부가 내다보이는 한편

\* 말뫼 시립도서관 직원들이 LGBTQ 관련 교육을 받고 도서관 정책, 마케팅 등 도서관 전 분야에서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것을 뜻한다.

내부도 훤히 보인다. 각 층의 서가는 복도로 나와 있고 만화, 게임, 미디어 콘텐츠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전체 공간을 조망할 수 있다.

삶의 주제가 다양하게 어우러지는 도서관은 50여 개 언어로 된 책을 포함해 5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보다 700여 개 프로그램을 자랑한다. 각 공간에서는 수시로 크고 작은 행사가 진행되는데, 특히 입구에 놓인 책장들은 대부분 이동식으로 언제든지 600여 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홀이 되기도 한다.

토론으로 발전을 도모해 온 도서관은 연령과 환경마다 적합한 공간을 구비했다. 어린이실(Kanini)은 연령별로 무려 세 곳으로 나뉘어 있고, 청소년실(Balagan) 역시 별도로 구성되어 음악과 미술 등 창작 활동이 일어난다. 청년실(Krut)에서는 양성평등, 도시계획, 미래 사업 등을 주제로 한 워크숍이 진행되며 외부 교육기관과 협력해 취업과 창업에 대한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이는 외부로도 확장하는데, 도서관에 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책과 자료를 발송하면서 도서관 버스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7월 도서관은 ‘말로 꺼내기 어려운 주제’에 대한 정보와 접근을 높일 것을 알렸다. 일레로 쿼어, 무성애, 논바이너리(기존의 성별 구분법에서 벗어난 것) 등의 주제를 검색하면 해당 정보를 별도로 모아놓은 장소가 표시되고 안내받을 수 있다.

과거 말뫼라는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든 것처럼, 도서관에 사람이 모여든다. 오늘에 머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계절과 환경, 그리고 모두의 일상을 투영하는 달력에 각자의 꿈과 목표를 적는다. 빛의 달력에서 빛나는 오늘을 발견하는 곳, 말뫼 시립도서관이다. ❶



CITY LIBRARY  
OF MALMÖ

### 스웨덴 도서관 정보

#### 01. 스톡홀름 공공도서관 (Stockholm Public Library)

🕒 (평일) 오전 10시~오후 8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4시  
📍 Sveavägen 73, 113 80 Stockholm, Sweden

#### 02. 말뫼 시립도서관 (City Library of Malmö)

🕒 (월~목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8시,  
(금요일) 오전 8시 30분~오후 6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5시  
📍 Kung Oscars väg 11, 211 33 Malmö, Sweden

- 말뫼 시립도서관 구관 외부 모습.
- 전면 유리창으로 외부가 훤히 내다보이는 신관 내부 모습.





## 발견의 즐거움 도서관 속 큐레이션의 세계

글 류민정 사진 각 도서관

큐레이션이란 콘텐츠의 원형을 지키며 정보에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 때문에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많아질수록 큐레이터의 역량이나 플랫폼 형식도 중요해졌다. 이는 기존 큐레이션이 적용되던 영역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래전부터 사서들이 해 오던 일반적인 북 큐레이션 외에 지역 자원이나 외부 기관과 결합한 큐레이션이나 SNS 혹은 영상물을 활용한 다채로운 큐레이션이 등장했다. 정보에 접근하는 색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큐레이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도서관들을 소개한다.



### 1 시민 큐레이션

#### 수성구립고산도서관 '지역 주민이 직접 추천하는 서로책로' & 순천시립삼산도서관 '시민 북 큐레이션'

북 큐레이션 하면 사서가 직접 책을 선정하고 추천하는 방식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최근에는 시민들에게 직접 책 추천을 받는 형식의 큐레이션을 선택하는 도서관이 늘어나고 있다. 목록으로 추천받는 형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큐레이터가 되어 추천하는 도서와 추천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 큐레이션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북 큐레이션은 이용자가 도서관을 주체적으로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큐레이션을 바라보는 또 다른 이용자들에게 보다 친근감을 불러일으킨다는 반응이다.

수성구립고산도서관의 시민 큐레이션 프로그램명은 '지역 주민이 직접 추천하는 서로책로'다. 독특한 것은 큐레이션 형태가 '엽서'라는 점이다. 스마트 도서관과 무인 대출함이 흔한 시대에 큐레이션의 방식을 아날로그로 선택한 것이다. 도서관 모습이 그려진 엽서를 색칠하고 도서 이름과 추천 이유를 적어 우체통에 넣으면 로비에 전시하는 방식으로 시민 참여와 전시, 북 큐레이션이 동시에 이뤄진 사례다.

순천시립삼산도서관에서는 시민 북 큐레이션 참여자를 모집하여 직접 소개하고 싶은 책을 선정, 2022년 7월 일반 시민 5팀(11

명)과 동네 서점 3곳(골목책방 서성이다, 책방심다, 도그책방) 총 8팀이 8개 도서관에서 도서를 전시하였다. 전시 주제는 각 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청소년 자존감, 캠핑, 채식, 갯벌 등 다양하게 선정되어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1. 시민 북 큐레이션을 진행했던 순천시립삼산도서관 전경.
2. 수성구립고산도서관 전경.
3. 수성구립고산도서관 내 이용자가 북 큐레이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둔 공간.
4.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수성구립고산도서관의 북 큐레이션 전시 모습.





2

공간 활용  
큐레이션

의정부가재울도서관 '한뼘 전시회', '회벽 시네마', '이야기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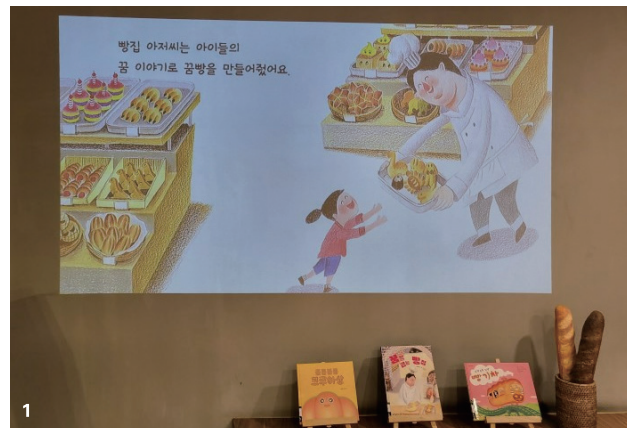
의정부가재울도서관은 지하철 1호선 가능역 3번 출구 역사 건물에 위치한 '기차길 옆 도서관'이다. 환경 개선과 도시재생을 위해 지하철 하부 공간에 지어진 최초 도서관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협소하지만, 독특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지하철 소음을 줄이기 위해 보존 서고를 2층에 만들고, 누구나 올 수 있는 쉼터의 느낌을 주기 위해 운영시간 중에 잔잔한 음악을 재생한다.

또한 매월 사서들이 도서관 곳곳에서 선보이는 재미있는 큐레이션은 의정부가재울도서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 요소다. 작지만 알찬 전시를 목표로 매월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그림엽서, 사진, 소품, 지역 연계 작품 등을 전시하는 '한 뼘 전시회'는 말 그

대로 작은 서고를 활용한 전시지만, 사서가 선정한 그달의 전시에 알맞은 주제와 책이 눈과 뇌를 즐겁게 해준다.

'회벽 시네마'는 글자 그대로 회색 벽에 그림책을 영상으로 상영하는 방식의 전시다. 이러한 전시 방식을 활용해 의정부가재울도서관은 가능역 하부 공간을 그림책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공간으로 조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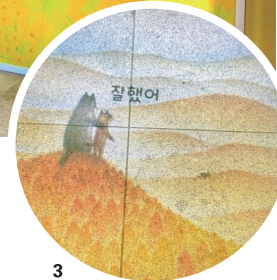
2021년 봄부터 시작한 '이야기길'도 있다. 의정부가재울도서관 이야기길은 그림책의 표지 이미지로 포토 월을 만들고, 그림책 속의 내용을 디자인 라이팅으로 밝게 연출해 지하철역 분위기를 개선했다. 현재 전시된 그림책은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선정 작가 최숙희의 <주문을 말해 봐>다.



1



2



3

1. 의정부가재울도서관에서 진행 중인 <회벽 시네마 : 뽕뽕하게> 전시 모습.
2. 의정부가재울도서관 세 번째 이야기길 그림책 선정 포토 월.
3. 지하철 가능역에 그림책을 활용한 디자인 라이팅이 설치된 모습.
4. 한뼘 전시회 <살찐 맛>의 포스터.
5. 의정부가재울도서관 내부.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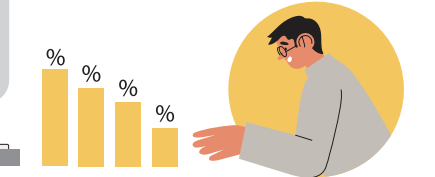


6



7

6. 인천수봉도서관 전경.
7. 빅데이터를 통해 진행한 동화 속 캐릭터들의 MBTI 분석 결과.



3

빅데이터 정보 서비스  
큐레이션

인천수봉도서관 &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데이터 분석 동아리(D.A.L)

2016년부터 현장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과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 계절학기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업무협약을 맺어 온 인천수봉도서관과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는 '지역 주민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와 학생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제공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시작으로 데이터 분석 동아리인 D.A.L에서는 2019년 1분기에 인천수봉도서관을 방문하는 성별&연령별 대출 비율과 주제별 대출, 인기 대출 도서, 반납 방법, 키워드 추이, 월별 대출 현황 등을 공개했다.

2022년에는 본격적인 큐레이팅 기반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면서 분기별로 환경, 경제, MBTI(성격유형지표)와 같은 트렌드 키워드를 분석하고, 인천수봉도서관 온오프라인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최근 공개한 9~10월 큐레이팅 기반 정보서비스 주제는 MBTI로, 수봉도서관 2층에 자리한 테마 벽면에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신데렐라나 헨젤, 백설공주, 곰돌이 푸, 피터 팬 등 동화,

소설, 신화 속 인기 있는 캐릭터들의 MBTI 분석 자료를 제공하며 정보 제공과 더불어 트렌드를 읽는 즐거움까지 더하고 있다. 콘텐츠가 무한정으로 쏟아지는 환경 속에서 도서관 큐레이션이 필수가 된 지금, 도서관은 이제 선택에 도움을 주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발전된 큐레이팅 방향을 찾아야 할 때다. 일대일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나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특화 프로그램, 전시 및 정보에서 한 걸음 나아가 향후 피드백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식으로 말이다. AI 추천이나 빅데이터 기술 등 앞으로 다가올 고도의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를 기대해본다. ⑤

ㅣ 류민정 ㅣ

그림책 스토리텔링 교사이자 자유기고가이다. 주로 기업 사보와 각종 웹진에 인터뷰나 취재 원고를 쓴다. 아이들과 책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며, 취재로 만난 사람과 공간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기쁨을 느낀다.



## 심리학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사람

### 심리학자

# 정성훈 Jung-Sunghoon

#### |정성훈|

심리학을 기반으로 수많은 기업과 공공 기관에서 연간 200회 이상의 강의를 소화하고 있다. 특유의 유머와 강력한 전달력을 무기로 심리학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사명감을 갖고 강의한다. 현재 긍정 커뮤니케이션 대표이자 멀티캠퍼스 심리학 리더십 공개 전임교수, 한국능률협회 파트너 교수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심리학>, 공저 <청춘아 매력을 잡아라>가 있다.

심리학자 정성훈은 언제나 군중 속에 있다. 심리학을 주제로 강연을 시작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그를 찾는다. 강의 주제는 조직 커뮤니케이션, 회복 탄력성 등 다양하다. 저마다 다른 주제로 강연을 요청하지만, 결국 모든 만남 속에는 ‘사람’이 있다. 사회 곳곳에서 사람과의 관계로 아파하고, 갈등했던 사람들은 그를 만나 나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결심을 한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평범한 우리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심리학자 정성훈은 말하고 있다.

진행 이혜민 사진 안호성

#### 1.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심리학>을 쓴 작가이고요. 또 기업에서 심리학 기반의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정성훈이라고 합니다.

#### 2.

심리학자이자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강의하는 강연자입니다. 어떻게 ‘심리’라는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데 무엇이 중요할까를 고민하다가 관계가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을 깊이 공부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심리학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또 공부하면서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아내를 비롯해 가까운 사람, 특히 저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데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이 심리학이라는 학문이었습니다.

#### 3.

심리학이 인생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저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살면서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마음의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나 혹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

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공부하다 보니 예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부하기 전과 후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 전에 저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 더 먼저였던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 마음은 이럴 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게 심리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4.

요즘은 몸이 아픈 사람만큼 마음이 아픈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지기 전에 어떻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나쁜 사건들을 경험하면 세 가지 특징들을 보입니다. 첫 번째가 ‘지속성’이라는 특징이에요. 지금 일어난 일을 과거, 현재, 미래로 늘어뜨리는 거죠. 만약 영업사원이면 나를 힘들게 하는 고객을 만났을 때 “나는 맨날 그래”라며 이런 일이 과거, 현재, 또 앞으로도 있을 것처럼 늘려서 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두 번째가 ‘확장성’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지금 일어난 일과 전혀 상관없는 영역으로 그 스트레스를 연결시켜요. 예를 들면 육아에 지친 상태의 엄마가 남편 얼굴을 봤을 때, ‘이 남자를 만나고부터 내 인생이 꼬이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사고를 확장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회복되지 않는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가 ‘개인성’인데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원인을 다 ‘나’로 해석해요. 교통사고가 났어도 그날 내가 우회전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날 대중교통을 탔다면 하면서 사고의 원인을 자기한테서 찾는 거죠. 반대로 스트레스가 잘 회복되는 사람들은 힘든 일을 만나면 딱 그날로 끊고 확장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좀 별로야, 속상하지만 이런 일은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속성, 확장성, 개인성을 끊는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이 잘됩니다.

#### 5.

빠른 회복 탄력성을 위해 말씀하신 지속성, 확장성, 개인성을 끊는 사고를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사실 일상에서 회복 탄력성을 갖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낙관적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는 훈련이 가능합니다. 만약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에게서 지속성이 보인다면 그것을 자각하고, “지금 일어난 일이 과거와 미래로 늘어나고 있어, 잘라야 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독백하듯이 애



기하는 게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확장될 때와 개인성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로 독백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전혀 상관없는 영역으로 내 스트레스가 확장되고 있잖아, 끊어야 해. 지금 스트레스의 원인을 다 나에게서만 찾잖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스스로 잘못된 사고를 찾고 스스로에게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돼요. 성인들은 성숙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 사고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면 성장합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 6.

**자신의 마음과 상태를 정확히 알 때, 감정의 해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기 이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나를 잘 아는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감정 인식에 좋은 것은 네이버 같은 곳에 감정 단어를 쳐보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감정의 표현 단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감정 목록들을 보고 내가 현재 어떤 감정들을 느끼는지 선택해서 적어본 뒤 이 감정을 왜 느끼는지를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 ‘내가 이런 이유로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구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였을 때 감정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게 중요한데, 감정을 해소할 때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나보다 약한 내 주위 사람들에게

감정을 풀지 않는 것과 나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운동이나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나 전시회에 가는 등 예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앞의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게 감정을 건강하게 풀어내면 자기를 인식하고 컨트롤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개인의 성향에 따라 그에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이 따로 있나요?**

감정이 상했을 때 이를 표현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유형인데,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누군가한테 표현하는 게 잘 안 되는 성격과 기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 유형으로, 감정이 상하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거죠. 세 번째 유형은 행동적 유형이라고 하는데, 감정이 상하면 얼굴에 전부 드러나고, 소리치고 싶거나 벽을 치고 던지고 싶은 충동이 드는 유형입니다. 이렇게 유형이 다르다는 건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해결책은 심리적 유형의 경우, 잠깐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혼자 느린 행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심리적 유형은 누군가랑 같이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신경 쓰는 타입이기 때문에 자발적 고립만 해도 감정이 많이 조절되실 거예요. 신체적 유형은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몸 컨디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자는 것, 먹는 것, 운동하는 것, 그중 잠을 추천드립니다. 점심시간

을 활용해 15분 정도라도 자고 일어나면 감정이 많이 내려오실 거예요. 마지막 행동적인 분들은 평소엔 무언가 치는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배드민턴이나 야구, 뽕망치나 샌드백 등 타격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감정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 8.

**직장, 가정 등에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갖춰야 할 것이 있다면요?**

‘공감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군가 내 감정을 느껴주는 것에서 굉장히 큰 회복과 힘을 얻어요. 단순히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게 공감해주는 것이죠. 충분히 공감해주는 단 한 사람과의 관계만으로도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꽃피울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가 거기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건 네가 잘못된 거야”.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나의 평가고 판단이잖아요. 평가나 판단은 일할 때 후배에게 하시고요. 마음과 마음을 나눌 때는 그저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느끼는구나’ 하고 최대한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 같이 느끼는 것들을 꾸준히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공감 능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 9.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도서관은 심리학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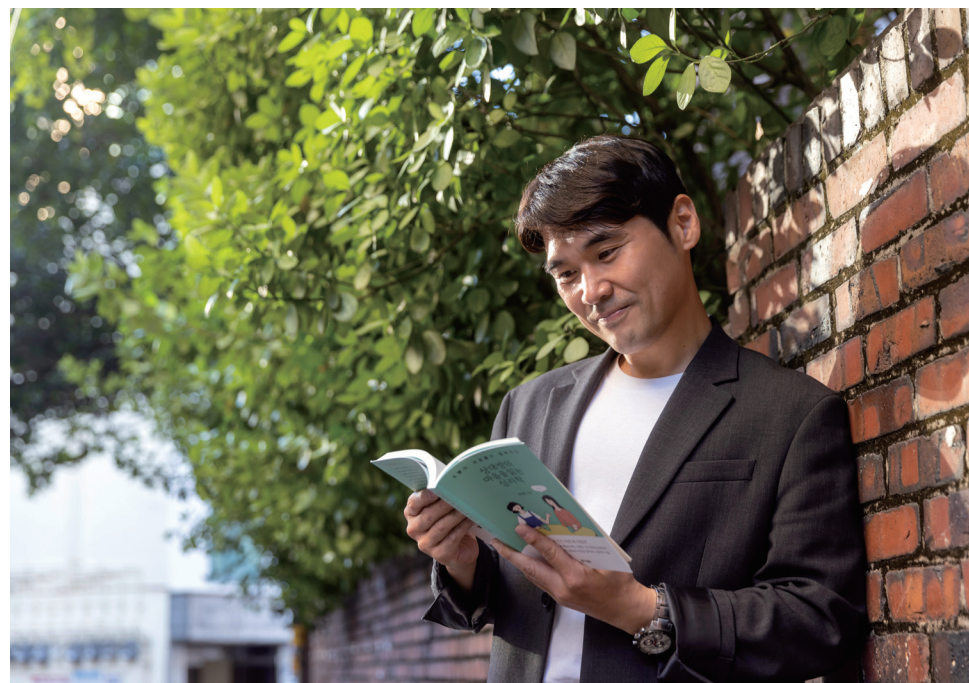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이 행복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복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은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는 것이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주위 사람, 주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만큼 나를 성장시키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또 돈의 제약을 받잖아요. 하지만 도서관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과 경험들을 하루에도 여러 방면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우주 같은 보물 창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독서를 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쉽게 만날 수 없는 책의 저자와 대화하면서 그 사람이 느꼈던 영감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10.

**마지막으로 <오늘의 도서관>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하게 돼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작가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할 계획인데요. 수많은 심리학 이론들 중 어떤 이론을 독자들에게 소개할지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곧 구상을 마치고 다음 책 원고 집필을 시작할 것 같고요. 또 심리학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잘 전하고, 무엇보다 그들의 삶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작가로서, 강연자로서 왕성하게 활동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책과 함께 성장하는 삶을 살길 응원하고 꿈꿔겠습니다. ㉠



심리학자 정성훈의 저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심리학>.



정성훈 심리학자의 인터뷰 영상은 국립중앙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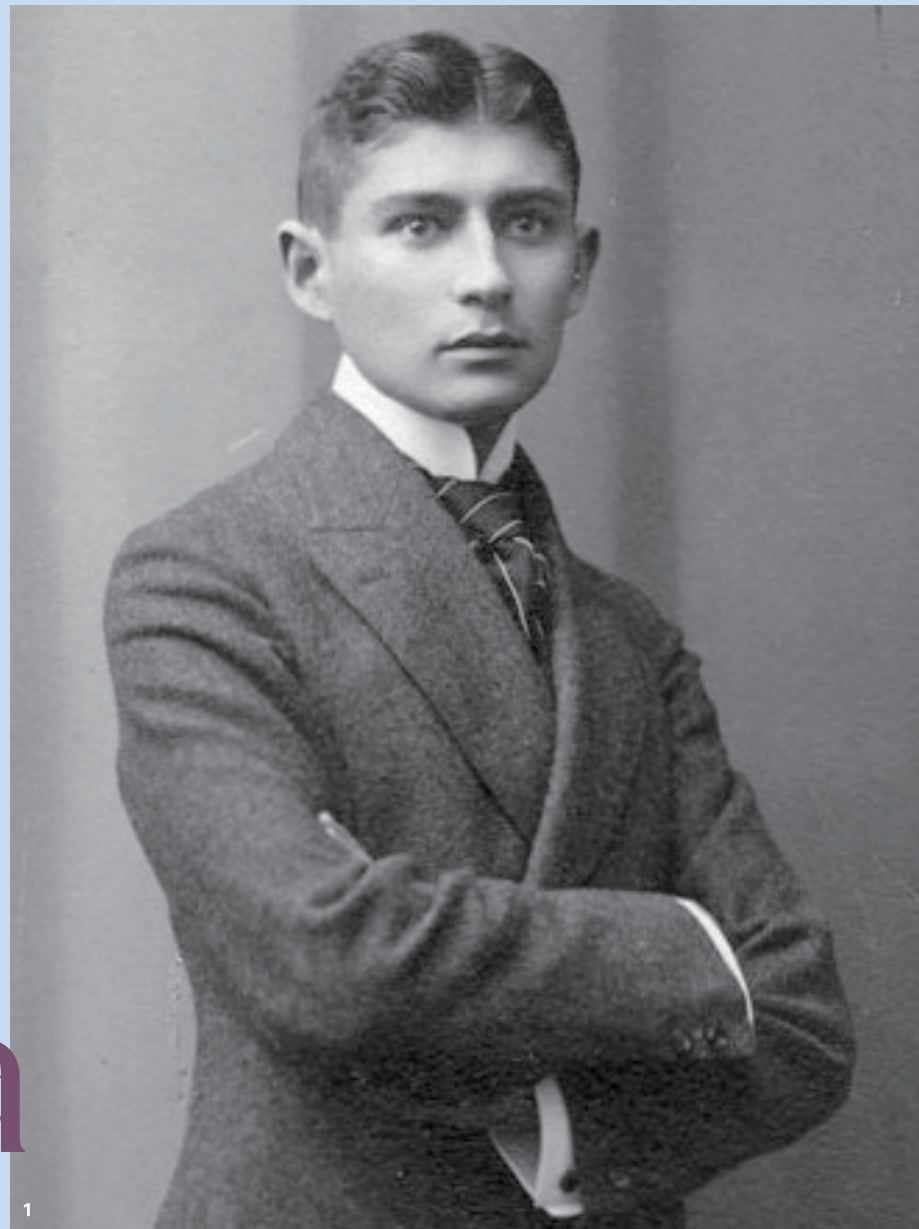


## 편지 안에 숨겨둔 진심

프란츠 카프카(1883~1924)

가을은 읽기 좋은 계절이지만, 또한 쓰는 것에도 마음이 끌린다. 무엇을 쓰는가? 그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벌써 가슴이 따뜻해지는, 바로 편지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라며 노래한 가수가 있다.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쓴 누군가도 떠오른다. 이해인 수녀는 ‘가을 편지’라는 시에서 “당신을 향해 쓰고 싶은 말들이 오늘은 단풍잎으로 타버립니다”라는 말로 애뜻한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깡마른 사나이,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도 늦은 밤 누군가에게 긴 편지를 쓰고 있다.

글 윤성근 사진 각 출판사, 위키피디아, shutterstock



1

# Franz Kafka

###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

카프카는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나 일생을 거의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냈다. 유대인인 그의 아버지 헤르만 카프카(Hermann Kafka)는 자수성가한 상인이다. 아버지는 가난한 삶을 경멸했고 아들도 돈 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카프카는 장사보다는 문학의 길로 가기를 원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런 선택을 완강히 반대했다. 결국, 카프카는 문학을 포기하고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한다. 그는 학업을 마친 후 노동자 상해보험 공사에서 일하며 밤엔 소설을 쓰는 이중생활을 이어간다. 고된 나날들이었지만 직업을 가진다는 건 잠시나마 아버지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했다.

하지만 카프카의 기대와 달리 아버지의 간섭은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들이 장사를 하지 않고 사무직이 된 것부터 마뜩잖게 여겼다. 문학을 좋아하는 막스 브로트(Max Brod) 같은 친구와 어울리는 것도 싫어했다. 서른 살 중반 무렵엔 수공업자의 딸인 율리에 보리체크(Julie Woryzek)와 약혼하겠다고 하자 그것도 완강히 반대하고 나섰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카프카는 편지로 그동안 쌓인 감정을 밝히고자 했다. 그는 아버지를 ‘수수께끼 같은 폭군’이라고 썼다. 끝내 이 편지는 아버지에게 보내지 못했으나 카프카가 죽고 난 후 친구 막스 브로트에 의해 책의 형태로 세상에 공개됐다. 이 긴 편지는 번역서 기준으로 100쪽을 훌쩍 넘기는 분량으로 카프카의 다른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여러 단서를 포함하고 있다.

카프카는 편지에서 아버지의 끊임없는 간섭을 향해 “이유는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한 번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 법의 지배하에 있는 세계”였다고 말한다. 이 문장은 폭력적인 아버지 캐릭터가 등장하는 소설 <변신(Die Verwandlung)>, <선고(Das Urteil)>는 물론 훗날 ‘고독 3부작’이라 불리게 되는 장편 <실종자(Der Verschollene)>, <성(Das Schloss)>, <소송(Der Prozess)>이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쓰였는지 짐작하게 만든다.

### 약혼자 펠리체 바우어에게 쓴 500통의 편지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 계기가 된 율리에와의 파혼 전에도 카프카는 다른 여성과 한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한 일이 있다. 1912년 8월, 친구인 막스 브로트의 집에 갔다가 만난 펠리체 바우어(Felice Bauer)는 단번에 카프카의 마음을 흔들어놓았다.

1914년 6월, 카프카는 펠리체 바우어와 약혼을 발표했지만 6주 만에 파혼하고 만다. 둘은 1917년에 다시 약혼했지만, 이 역시도 일

1) 프란츠 카프카,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 41쪽, 정초일 옮김, 푸른숲, 1999년.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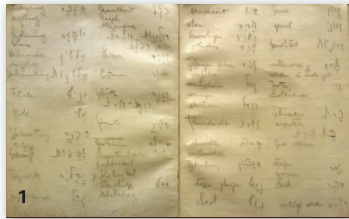
1. 현대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 프란츠 카프카.
2. 카프카가 일했던 노동자 상해보험 공사 건물.
3. 체코 프라하의 카프카 생가에 붙어 있는 카프카 명판.
4. 1912년 출판된 첫 작품집 <관찰>의 초판.
5. 1925년 출판된 미완의 장편소설 <소송>의 초판.



4

5





마 가지 못해 깨졌다. 카프카는 예술가의 길과 평범한 결혼생활을 동시에 이어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즈음 발병한 폐결핵도 카프카를 절망하게 만든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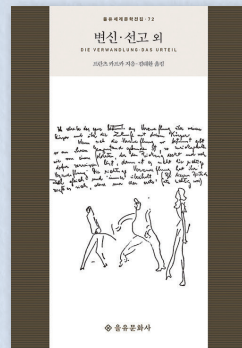
이러한 고민은 펠리체 바우어에게 보낸 500통이 넘는 편지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데, 이 편지 모음은 특별히 <카프카의 편지(Briefe an Felice und andere Korrespondenz aus der Verlobungszeit)>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어 작가의 내밀한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 두 번이나 약혼과 파혼을 거듭할 정도로 카프카는 펠리체 바우어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찬란한 창작의 불꽃을 피우던 시기에도 바로 이때였다. 평론가들이 카프카를 천재 작가로 꼽는 이유 중 하나가 단편소설 <선고> 때문인데, 이 작품은 1912년 9월 22일 밤 10시에 쓰기 시작해 다음 날 오전 6시에 탈고했다.

단 여덟 시간 만에 이토록 뛰어난 작품을 쓴 사람을 천재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 부를 수 있을까. 작품을 쓴 집필 시간까지 알 수 있는 이유는 카프카가 이런 사실도 모두 편지로 써서 펠리체 바우어에게 전했다 때문이다. 9월 22일은 카프카가 펠리체 바우어에게 편지로 사랑을 고백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나중에 정식으로 출판된 <선고> 속지에 카프카는 'P·B에게'라는 현사를 써서 연인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 평생의 친구 막스 브로트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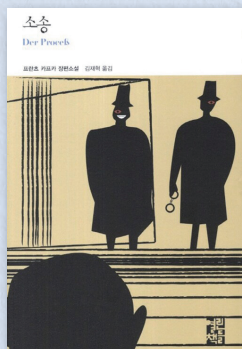
대학에 다니던 시절 카프카는 문학 클럽에서 막스 브로트를 만나 작가의 꿈을 키웠다. 그는 카프카가 쓴 글의 작품성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린 인물이다. 우리는 흔히 브로트를 카프카의 친구이며 그의 작품을 세상에 소개한 편집자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 카프카가 살아 있던 동안에는 브로트가 훨씬 유명한 사람이었다.

막스 브로트는 학창 시절부터 이미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문학, 철학, 음악 등 여러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이뤄낸 인물이다. 카프카가 사망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막스 브로트는 이미 저서를 마흔 권 가까이 낸 국제적인 유명 인사였다. 이런 친구 브로트에게 받는 칭찬과 격려가 카프카에게 상당한 힘이 됐다. 그는 브로트와 함께 자신이 쓴 작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함께 여행하며 우정을 쌓았다. 평생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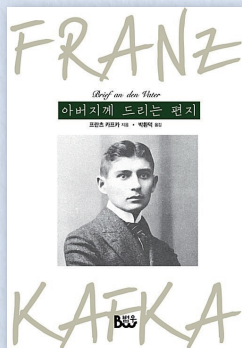
#### <변신·선고 외>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중단편 대표작 모음집이다. 카프카 생전에 발표한 작품들로 <선고>, <변신>, <유형지에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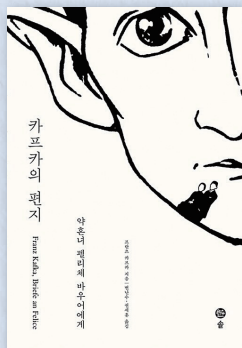
#### <소송>

카프카의 대표 장편소설이다. 인간 존재의 근거에 대한 문제 의식을 드러내며 20세기 현대 문학의 서막을 연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

카프카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글 형식의 에세이다. 훌륭한 문학성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와 동기가 담겨 있다.



#### <카프카의 편지>

1912년부터 1917년까지 5년간 약혼녀 펠리체 바우어에게 보낸 편지를 묶어 쓴 책으로, 편지 분량이 엽서를 포함해 500통이 넘는다.



어진 친분으로 인해 훗날 막스 브로트는 카프카의 작품을 출판하고 평전을 쓰는 값진 임무를 맡게 된다.

그 당시 불치병이었던 폐결핵에 걸린 카프카는 자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예감하고 막스 브로트에게 유언을 남긴다. 그가 친구에게 쓴 마지막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미 출판된 몇 권을 제외하고 일기와 편지를 비롯한 자신의 모든 원고를 불태워 없애라는 거였다. 고민을 거듭한 브로트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카프카가 쓴 대부분 작품은 세상 밖으로 나왔다. 유언

대로 원고를 불태웠더라면 우리는 벌레로 변한 채 죽음을 맞이한 그레고르 잠자와 영원한 소송에 휘말린 가련한 주인공 요제프 K를 알 수 없었을지 모른다. 아버지에게 쓴, 끝내 보내지 못하고 보관한 장문의 편지와 연인에게 마음을 전한 엽서 또한 사라지고 없을 터다.

카프카가 41세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신문에 난 부고의 이름 철자가 틀렸을 정도로 그의 죽음은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다. 하지만 100년 전에 쓰인 이 천재적인 감수성을 지닌 작가의 작품은 여전히 우리들의 얼어붙은 내면을 두들기는 도끼로 남았다. ❶



1. 이스라엘 국립도서관이 소장한 카프카 친필 노트.
2. 체코 프라하에 있는 프란츠 카프카 박물관.
3. 체코 프라하 지슈코프 지역에 있는 카프카 묘지.
4. 체코 프라하에 있는 카프카 동상.

#### 윤성근

개인 서점을 운영하며 작가로 활동 중이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헌책방 기담 수집가>, <작은 책방 꾸리는 법>, <서점의 말들> 등이 있다.





## 독립서점 산책

대전 독립서점  
‘다다르다’다양성을  
존중하는 서점

글 장성욱 사진 안호성

삶은 다양해야 하고 다양한 삶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독립서점 ‘다다르다’는 다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화합하여 만든 커다란 공동체를 꿈꾼다. ‘우리는 다 다르고 서로에게 다다를 수 있어요’라는 서점 슬로건. 여기에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다다르다 서점 내부 모습.

## 다 다르다+다다르다=다다르다

대전광역시 은행동에 자리한 독립서점 ‘다다르다’의 역사는 2011년 10월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준태, 박은영 대표는 6명의 동료들과 함께 다다르다의 전신(前身)인 ‘도시여행자’를 오픈했다.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들이 한 일은 여행 가이드 제작, 여행 페스티벌 기획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었다. 대전이라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결코 실행하기 힘든 일이었다.

“대전이라는 도시는 대학교가 19개나 있을 만큼 청년 인구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청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지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겼고, 지역사회 문제도 해결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지역 청년들과 주민들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카페 공간을 만들었어요. 카페를 운영하면서 독립 출판물을 조금씩 입고하게 되다 보니 서점을 겸하게 되었고, 출판에도 점차 관심이 생겼어요.”

2019년 4월, 현재 위치로 서점을 이전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2018년 당시 서점 건물주의 일방적인 퇴거 통보로 갈 곳을 잃게 된 두 대표는 경제 사정상 소중한 동료들과도 헤어져 각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비록 서점에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지난 7년간 서점을 운영하면서 얻은 가장 큰 자산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두 대표의 큰 자산이란 바로 서점을 아껴주는 지역 주민들의 존재였다. 서점의 사정을 알게 된 6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은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아 두 대표에게 건넸고, 두 대표는 각고의 노력 끝에 현재 위치에 ‘다다르다’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다.

“서점을 이전하면서 서점 브랜딩도 새롭게 하게 되었어요. 기존의 여행 콘셉트를 확장시켜 다양한 삶에 대해 고민하고, 책을 통해 질문을 던지는 라이프스타일 서점을 표방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서점 이름을 ‘도시여행자’에서 ‘다다르다’로 바꿨어요. 다다르다(differeach)는 다르다(different)와 닿다(reach)를 합쳐서 만든 이름으로 ‘다 다르다’와 ‘다다르다’라는 중의적 의미를 담았어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서점 이름에 담은 거죠.”

다다르다 두 대표는 서점 운영과 독서 프로그램 진행, 지역 행사 기획 등 업무량이 많지만 둘이서 모든 업무를 소화할 만큼 열정적이다. 서점 콘텐츠





1



2

1. 다다르다 김준태 대표.
2. 에스프레소 바 공간인 1층 모습.

츠 기획과 북클럽 운영은 함께하지만, 김 대표는 서점 운영과 고객 응대 서비스를 담당하고, 박 대표는 페스티벌 기획 및 디자인, 브랜딩 디자인에 집중하며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 영수증에 쓴 서점 일기

다다르다는 1층 에스프레소 바 공간과 2층 서점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1층 내부 철제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서점 공간이 나타나는데, 층고가 높은 편이라 가장 먼저 탁 트인 느낌을 받게 된다. 창을 통해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에 주변 성당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까지 더해지면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절로 간절해진다. 북 큐레이션의 경우 기본적으로 장르나 분야별로 책을 분류해 서가를 꾸몄으나, 손님들이 보물찾기 하듯 자신에게 맞는 책을 찾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북 큐레이션을 강조하지 않는다. 하지만 손님들이 책을 둘러보며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책의 배치에는 꼼꼼한 편이다. 예를 들어, 식물 관련 책 다음에 생태, 기후 위기, 귀촌, 비건 등의 책을 두는 식이다. 취급하는 책은 상대적으로 일반 출판물이 많지만, 독립 출판물도 650여 종으로 타 서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한다.

다다르다는 서점 이름을 응용해 만든 다양한 독서 모임을 1년 365일간 쉼 없이 운영한다. 현재 진행하는 모임만 13개이며 13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서점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서점원과 한 달에 한 권씩 같은 책을 읽는 독서생활 정기구독 서비스 ‘월간 다다르다’,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진중한 대화를 나누는 커뮤니티 독서 모임 ‘다다른 북클럽’이 있다. 또 다른 독서 프로그램 중 ‘다다른 책, 말겨둔 책’ 프로젝트가 있는데, 책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는 소개 글이 인상적이다.

“다다른 책, 말겨둔 책”이란 누군가가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선결제하고 가면, 제가 그 책과 어울릴 만한 분을 선정하여 책을 드리고, 선정된 분은 책을 읽고 간단한 엽서나 서평을 결제하신 분에게 전달하는 프로젝트예요. 현재 200여 건 정도 진행했는데 저희는 우체부처럼 두 사람을 연결하는 역할만 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소박하지만 저는 이런 사회활동이 지역사회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점을 구경하다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있다. 한쪽 벽면에 대자보처럼 크게 인쇄하여 붙여둔 ‘영수증 서점 일기’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다다르다 두 대표는 독서가 즐거워지는 방법을 찾다가 영수증 하단에 일기를 써서 손님들께 드리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다. 2017년 3월부터 책과 커피를 구매하는 분들에게 서점 일기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서점과 카페를 겸하고 있다 보니 커피만 마시고 가시는 분들도 종종 계셨어요. 그런 분들도 책과 서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영



수증 하단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책 구절을 실었는데 제 예상보다 반응이 훨씬 좋았어요. 그렇게 영수증 서점 일기가 탄생하게 되었고, 지금은 서점의 시그니처 콘텐츠가 되었어요. 서점 일상 이야기, 책 속의 문장들, 독서 모임 후기 등 다양하게 쓰고 있고,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서점 일기를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 건강한 서점 생태계 만들기

전국적으로 독립서점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독서 인구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다. 대전에도 독립서점이 37개 정도 존재하지만, 경

제적인 문제로 오래 살아남는 서점은 극히 드물다. 두 대표는 지역 서점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해 왔고, 그 해결책으로 다다르다만의 서점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작가가 없으면 서점도 존재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창작자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한 서점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창작자의 삶이 보장되어야 양질의 콘텐츠가 생산되고, 그래야만 서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다르다는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 꾸준히 독립출판 학교, 독립출판 마켓 등 독립출판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올해 10월에는 ‘2022 대전 독립출판대전’을 개최해 독립출판물 제작 실습 워크숍, 기획 및 디자인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많은 분들에게 독립출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어요.” 주민들의 다양한 삶을 존중하기에 그들과 함께 독서 공동체를 만들어온 다다르다의 지난 시간들. 김 대표는 지금의 독서 공동체를 서점 내 독서 모임 활동을 통한 ‘느슨한 공동체’라고 부른다면, 다음 단계는 창작 활동에 중점을 둔 ‘단단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다다르다의 노력의 결실은 두 대표가 야심 차게 준비 중인 다다르다 2호점, 3호점에서 만개할 예정이다.

“다다르다 2호점과 3호점이 될 건물은 이미 임차해 둔 상태예요. 2호점은 창작 공동체로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과 지역 문화 예술인이 함께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예정이에요. 3호점은 그 창작 공동체에서 제작한 창작물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어요. 다다르다의 최종 목표는 독서 공동체에서 창작 공동체로, 창작 공동체에서 다수가 함께 사는 거주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3. 한쪽 벽면에 크게 인쇄한 영수증 서점 일기.
4. 현재 진행 중인 ‘다다른 북클럽’ 현황을 벽면에 붙여두었다.
5. 2층 서점 공간은 층고가 높아 탁 트인 느낌을 준다.

### 다다르다

#### 영업시간

오후 12시~오후 8시(화요일 휴무)

####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73번길 6(은행동) 1층

#### 문의

010-9430-2715

@ www.instagram.com/differe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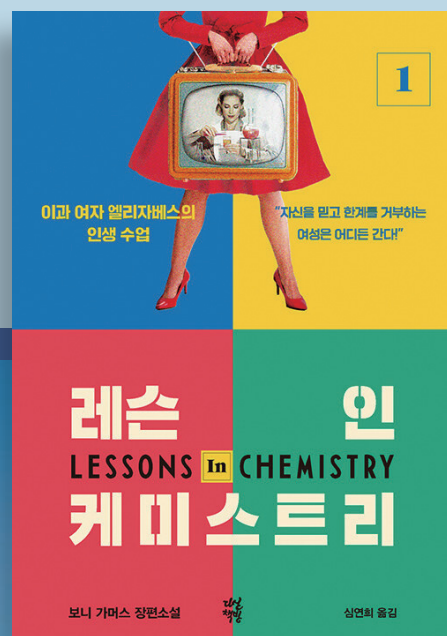
5



# 보니 가머스 <레슨 인 케미스트리> 여성 화학자가 들려주는 인생 수업

글 남궁인 사진 출판사, shutterstock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에게 기회조차 돌아가지 않았던 1960년대 미국. 여성 화학자 엘리자베스는 여성의 권리와 만인의 평등을 위해 온몸으로 맞서 싸운다. 60년 전 그녀가 전하는 메시지는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여성 억압과 성차별은 아직도 전 세계에 만연하기 때문이다.



© 보니 가머스

## Lessons in Chemistry

재미와 신선함을 겸비한 이야기

출판계에는 트렌드가 있다. 세상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언제나 새롭고 신선한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열광하는 화두가 등장하면 많은 창작자는 변주한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관심을 쏟는다. 그 화두가 슬슬 지겨워질 때쯤 새로운 화두가 출현하고 관심은 옮겨간다. 특히 '이야기'가 전부인 출판계는 트렌드에 민감하다.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 탄생한다.

독서가로서 계속 새로운 이야기를 접한다. 자연스럽게 최근 화두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된다. 지나간 화두에 기시감이나 지루함을 느끼기도 한다. 한동안 출판계는 페미니즘의 시대였다.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문학 작품과 교양서가 한참 쏟아졌다. 과학자의 이야기도 한때의 화두였다. 이공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신선했다. 이 두 가지 화두를 모두 품은 국내의 여성 과학자의 이야기 또한 많이 발

굴되었다. 열풍이 어느덧 잠잠해진 듯한 2022년 세상에 나온 소설이 <레슨 인 케미스트리>이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여성 과학자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이야기이다.

이 배경 때문에 일찌감치 이 소설을 진부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예순다섯 살까지 어떤 작품도 발표한 적이 없던 보니 가머스의 첫 소설은 출간하자마자 <뉴욕 타임스>와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올해의 출판 센세이션”으로 꼽혔다. 200만 달러 계약금으로 영국에 출간되었고 세계적으로 판권이 팔렸으며, 애플TV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져 방영을 앞두고 있다. 물론 이런 수식어가 진부할 수 있으므로 내 이야기를 보낸다. 마침 <레슨 인 케미스트리>를 집어 들었을 때 우연히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점점 더 아파졌지만 독서를 멈출 수가 없었다. 결국

| 남궁인 |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자 작가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만약은 없다>, <지독한 하루>, <제법 안온한 날들>, <우리 사이엔 오해가 있다>(공저) 등이 있다.



밤을 새워 두 권을 다 읽고 나서야 병원에서 맹장이 터져 복막염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 소설이 복막염 환자가 통증을 참고서도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소설임을 보증할 수 있다.

감자칩 광고 같은 “한 번 잡으면 놓을 수 없는 책”이라는 미사여구는 대단한 미덕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재미있어야 한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역경과 극복해 나가는 힘, 세세한 장면 묘사와 시대에 맞는 고증, 속도감과 윗트 있는 대사,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주제 의식이 모두 필요하다. <레슨 인 케미스트리>에는 단언컨대 그 모든 것이 있다. 적어도 기시감은 이 소설에서 없다.



#### 시대에 맞선 여성 화학자 엘리자베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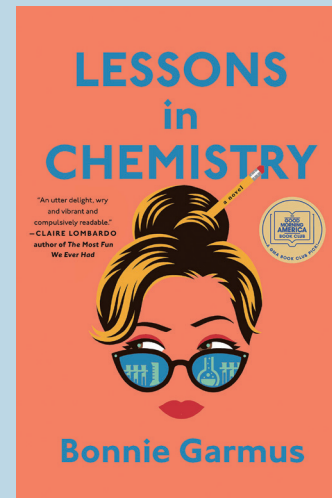
“그 옛날 1961년은 여자들이 오후마다 셔츠웨스트 원피스 차림으로 이웃집 정원에 모여 수다를 떨던 때였다.”라는 문장으로 소설은 시작한다. 실제 소설은 1961년 미국이 배경이고 똑똑하고 진취적이며 사랑스러운 주인공 엘리자베스의 직업은 화학자이다. 지금으로부터 61년 전 양성은 동등하고 인종 차별은 어리석으며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믿는 여성 화학자에게 순탄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 리가 없다. 엘리자베스는 지금으로서는 상식적인 여성의 권리와 만인의 평등을 위해 기나긴 항해를 떠난다.

엘리자베스가 겪어야 하는 역경은 시대를 반영하면서도 독자들을 기가 차게 만든다. 엘리자베스는 화학에서 특출난 성적을 내는 학생이었지만 지도교수는 방으로 불러 그녀를 강간한다. 지도교수의 배에 연필을 꽂지만 출동한 경찰은 화학과 대학원생이라는 신분을 믿지 않고 오히려

강간 피해자에게 폭행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묻는다. 지도교수는 그녀가 실수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섹스를 제안했다고 주장하지만 대학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그녀는 학교에서 쫓겨나 새로운 대학에서 천재 과학자 켈빈을 만난다.

엘리자베스는 켈빈과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회의적이라 동거를 시작한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두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 갑자기 켈빈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다. 슬픔에 잠긴 엘리자베스는 곧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켈빈이 남긴 어떤 소유물도 물려받을 수가 없다. 오히려 결혼하지 않은 몸으로 임신했기에 부도덕하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해고당한다. 엘리자베스는 딸 매들린과 여섯시 삼십분이라는 영특한 개와 함께 집을 실험실로 개조해서 곳곳이 살아간다.

#### 우리가 화학에게 배워야 할 것들



지방 방송국 피디로 일하던 월터는 우연히 엘리자베스가 딸 매들린에게 짜준 도시락을 보고 요리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방송국이 망할 지경이라 궁여지책으로 떠올린 아이디어였지만 프로그램은 방송계를 강타한다. 엘리자베스는 아일릿 커튼을 달아놓은 가짜 창문과 조리대의 온갖 주방 도구와 프라이이 달린 앞치마 대신 하얀 실험 가운을 입고 분젠 버너와 오일로 스코프로 요리를 했기 때문이다. 혁신적 걸크러시가 입소문을 타자 방송국은 그녀를 보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가 되고 그녀는 시대의 아이콘이 된다. 엘리자베스는 그녀를 주목하는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이 말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한다. “얘들아, 상을 차려라. 너희 어머니는 이제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방송국 책임자는 그녀를 강간하려 하고 황색 언론은 악의적인 짜깁기 기사를 써낸다. 과학자로서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발언하자 방송국 앞에 종교 시위가 펼쳐지고 괴한은 폭발물을 숨

긴다. 엘리자베스는 이런 시대적 역경을 박살 내듯이 헤쳐나간다. 1960년대 분위기가 재현되고 반전과 유머와 사랑스러움이 교차하면서 적절한 빌런이 활약하는 통에 페이지가 끝없이 넘어간다. 출생의 비밀이 시원하게 밝혀지는 결말에는 모두가 응원한 보람까지 느끼게 된다.

소설 속 61년 전은 우스꽝스럽게 불평등하지만 충분히 찼다. 엘리자베스는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차별의 시대에서 현시대의 상식을 적용하며 활약한다. 저자 보니 가머스는 과학 카피라이터로 일하면서 유리천장을 느껴 소설의 첫 문장을 5년 전에 썼다고 밝혔고, 많은 과학계 인사들은 “이 소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찬사를 보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의문만이 남았다. 과연 우리가 ‘화학’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녀가 마지막 방송에서 한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그 자리의 청중처럼 일어나 박수를 칠지도 모른다. 그녀는 칠판에 “화학은 변화다”라는 문장을 쓰고 방청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한다. “자신에 대한 의심이 들 때마다,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용기는 변화의 뿌리라는 말ですよ. 화학적으로 우리는 변화할 수 있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일어나면 다짐하십시오. 무엇도나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더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라 규정하지 말자고. 누구도 더는 성별이나 인종, 경제적 수준이나 종교 같은 쓸모없는 범주로 나를 분류하게 두지 말자고. 여러분의 재능을 잠재우지 마십시오, 숙녀분들. 여러분의 미래를 직접 그려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시면 본인이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과연 완벽하다. 화학으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이 절묘함이라니. ❶

ON AIR







## 관계를 잘 유지하는 비법 애플 타르트

글 장성욱

에세이 <애플 타르트를 구워 갈까 해>, 박지원 지음, 몽스북

장래가 촉망되는 패션 디자이너가 연인을 따라 돌연 유럽으로 떠났다. 미국 패션지 <보그>의 '올해의 신인 디자이너'로 선정될 만큼 성공 가도를 달리던 차에 모든 경력을 포기한 것이다.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그녀는 낯선 곳에서 테이블 위에 사랑을 담아 요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저자는 현재 글을 쓰고 사진을 찍는 스스로를 '라이프 디자이너'라고 부른다. 그리고 작은 부엌에서 이뤄지는 '테이블 위의 사랑'을 담은 첫 책 <애플 타르트를 구워 갈까 해>를 펴냈다.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과 모이기로 한 날, 저

자는 남편에게 말한다. "모이는 자리에 애플 타르트 한두 개 정도 구워 갈까 해." 평소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던 남편은 애플 타르트 대신 한국 음식을 권한다. 이유인즉, 식구가 모일 때마다 시어머니가 내세우는 메뉴가 볼로네즈 파스타와 애플 타르트 단 두 개뿐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애플 타르트가 시어머니의 소울푸드라는 것. 모든 요리에 능한 저자가 그러지 못한 시어머니를 위해 요리를 양보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남편의 반대 이유였다. 저자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소소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 한다는 걸 경험상 이미 알고 있었다. 고국을 떠나 타향살이하는 그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기도 했다. 공간을 가득 채우는 달콤한 사과 향과, 윤기가 찰찰 흐르는 속은 부드럽지만 겉은 바삭한 맛이 일품인 애플 타르트. 남편의 마음을 이해한 저자는 애플 타르트 대신 채소전과 생선전으로 메뉴를 변경한다. 그리고 가족 모임의 분위기는 따뜻한 온기를 품은 채 마무리된다. 모두 애플 타르트에 숨겨진 그녀의 소소한 희생과 배려 덕분이었다. ❸

# recipe

향 기 술 술 레 시 피



애플 타르트

1880년대 프랑스 동부 지역에서 유래한

프랑스식 디저트 애플 타르트!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개선, 감기 예방 등의 효과가 있어요.

### 재료

#### 시트 재료



❶ 중력분 300g



❷ 버터 180g

❸ 소금 5g

❹ 설탕 10g

❺ 물 100g

❻ 달걀 1개

#### 필링 재료



❶ 사과 2개



❷ 설탕 500g

❸ 꿀 25g

❹ 버터 20g

❺ 전분 3g

❻ 시나몬 파우더 2g

01 중력분과 버터를 섞어 잘게 부순 다음 화산 분화구 모양을 만든다.

02 물, 설탕, 소금, 달걀노른자를 부어 반죽을 완성한 뒤 냉장실에 1시간 넣어둔다.

03 팬에 꿀과 설탕을 넣고 캐러멜색이 될 때까지 졸인다.

04 얇게 썬 사과와 시나몬 파우더, 전분, 버터를 넣어 필링을 완성한다.

05 반죽을 3mm 두께로 편편하게 만들어 파이 틀에 깔아준다.

06 포크로 반죽에 구멍을 낸 뒤 그 위에 사과 필링을 붓는다.

07 180℃ 예열한 오븐에서 30분간 구워주면 애플 타르트 완성!

Good!

아이스크림이나 과일을 곁들여 먹으면 좋아요!



앤드루 포터 소설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 감정의 절제가 만들어낸 서늘한 아름다움



끊임없이 감정을 잘라낸다. 녹진하게 슬픔이 쌓일 때면 또다시 서늘하고 차갑게 문장을 종결시킨다. 하지만 반대로 독자의 마음은 포섭된다. 먼 깊은 곳에 숨겨둔 부분들이 글 위로 끄집어져 나온다. 앤드루 포터의 소설집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은 빛에 투영된 물질의 이면에 맏히는 그림자처럼 생의 어두운 사실을 보여준다.

글 조혜림 사진 출판사, 배급사, 위키피디아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앤드루 포터

생의 공허함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고 과거를 계속 돌아보게 된다. 앤드루 포터의 소설집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속 주인공들은 죄의식 혹은 슬픔이 깃든 과거의 어느 순간을 자발적으로 떠올린다. 그것을 끄집어내는 행위는 모두의 상처가 될 수 있기에 스스로 그 기억의 무덤이 되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 수록된 열 편의 단편소설을 모두 읽고 나자 몸이 추워지면서 주인공들의 감정을 이고 진 내 마음이 버거웠다. 여리고 푸르른 책 표지처럼 나 역시 서리 맞은 새벽의 땅처럼 차가워졌다.

### 섬세하게 그려낸 인간의 빛과 그림자

사실 포터의 소설들은 명확하게 비슷하거나 이어진다고 할 순 없다. 하지만 이 책의 단편들은 잊으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각인 같은 사람들의 기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제각각의 삶이지만 모두가 알릴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있다는 주제로 열지만 길게 관통된다. 타인의 슬픔, 두려움, 거짓말 혹은 그저 나에게는 잊혀서 정확한 형태로 떠오르지 않는 기억들. 결혼에 실패한 사람, 불행을 끌어안고 사는 남매, 동성애자인 어머니 등 다양한 사람들의 삶 속에 담긴 두려움과 슬픔을 이야기하고 이해하게 한다. 소설은 공통적으로 등장인물들의 과거를 회고하며 실패, 실수, 후회에 대한 기억을 다룬다.

첫 번째 작품 '구멍'에서는 수없이 교차되는 영킨 기억들 사이에서 '나'는 어떤 것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실체인지 끝내 알려주지 않는다. 두 번째 소설 '코요테'에는 정신이 무너져가는 아버지와 형편 없어진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바

라보지만 본인 역시 비난받을 행위를 한 어머니를 지켜보는 아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그는 분개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그는 과거를 회상하는 관찰자일 뿐이다. 이어지는 소설 '아술'과 '강가의 개'에서 작가는 "독자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알 권리가 있다"라고 답을 주는 듯한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끝내 "이 일들은 너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란다"란 말로 독자를 철저히 방관자 혹은 지켜보는 자의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게 한다.

### 나를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을 찾아서

로버트가 채워준 나의 일부는, 내 생각에, 지금도 콜린은 그 존재를 모르는 부분이다. 그것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만큼 쉽게 파괴도 시킬 수 있는 나의 일부다. 그것은 닫힌 문 뒤에 있을 때, 어두운 침실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제일 편안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진실은 우리가 서로 숨기는 비밀에 있다고 믿는 나의 일부다.  
- 단편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중에서

표제작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은 물리학 교수 로버트와 서른 살 차이가 나는 제자 헤더의 사랑의 기억과 변화하는 애정의 형질에 대한 이야기다. 그들은 특별히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물리학이란 이론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인생에 있어 특별한 것 없는, 그렇기에 중요하거나 기억해야 할 내용이 아닌 대화들. 하지만 이런 대화들이 포개지며 두 사람 사이에는 쿠션처럼 부드럽고 연약한 애정의 감정이 서린다.

헤더는 젊고 야망 있는 콜린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앞둔 상태다. 하지만 헤더는 로버트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그녀는 서서히 형성되는 삶을 체념하듯 받아들이게 되었고, 콜린의 아내로서 평범한 삶을 택한다. 그와 글렌 굴드의 음악을 듣고, 물리 이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들이 사라지자, 그녀는 자신이 로버트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지금껏 말을 넘어서 교감이 존재했으며, 앞으로 서로가 영원히 존재하리라는 것을 깨닫는다. 로버트는 헤더를 너무 쉽게 이해한다. 콜린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녀만의 내밀한 생각과 존재를 그는 안다.

로버트가 림프 종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헤더는 충격과 슬픔을 숨기지 못한다. 헤더의 마음속 어두운 곳에 유일한 진실을 숨길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로버트였다. 그로 인해 헤더는 자신의 삶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그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녀의 어둠을 이해하는 빛, 그리고 현실적인 이성과 물질. 그녀는 빛과 이상 같은 그가 자신의 어둠을 영원히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다.



## 로버트와 헤더를 이어주는 기억의 이름새

##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

냉전시대, 러시아를 감동시키고 차가운 침묵을 깨트린 캐나다 출신의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 로버트와 헤더가 들었던 글렌 굴드의 희귀 테이프는 어떤 곡일까? 글렌 굴드의 명성을 만들어준 작품이자 최고의 앨범으로 칭송받는 <Bach: The Goldberg Variations, BWV 988>. 두 사람이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앨범을 들었을 거라는 믿음이 내겐 있다.

글렌 굴드가 연주한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잔잔한 그의 허밍이 연주 아래 깔려 있는 굉장히 실험적이고도 독특한 앨범이다. 처음 이 앨범을 들을 땐 이 소리가 바람 소리인지, 내 주변의 소음인지, 혹은 잘못 녹음된 앨범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앨범은 글렌 굴드가 뉴욕 체류 시 컬럼비아 레코드(Columbia Records)에서 녹음한 앨범이다.

녹음 기술자들은 피아노를 연주하며 허밍을 멈추지 않는 그의 기이한 행동에 충격을 받고 최대한 그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게 녹음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완성된 앨범은 아주 작고 잔잔하지만 빛 같은 연주 아래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어둠 같은 그의 허밍이 생생히 녹음됐고, 오히려 레코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음반 중 하나가 되었다. 이 허밍은 앤드루 포터의 소설 속 주인공들이 느끼는 괴로움과 후회, 서늘한 상처 그 자체다. 아름다운 피아노의 크고 높은 음으로도 가릴 수 없는 기억 주변을 서성이는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 로버트와 헤더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려 했으나 유령의 허밍처럼 정신을 사로잡는 어둠 속에서 영원한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간다.



캐나다 출신의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

## 나와 타인의 슬픔을

## 이해하려는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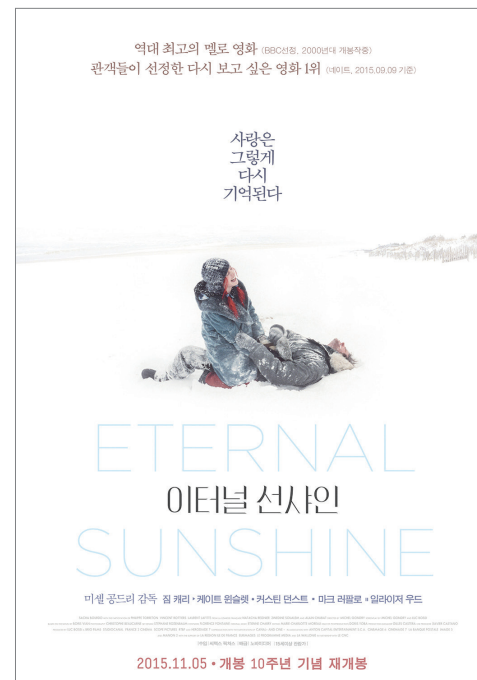
죄의식은 우리가 우리의 연인들에게 이런 비밀들을, 이런 진실들을 말하는 이유다. 이것은 결국 이기적인 행동이며, 그 이면에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든 일말의 죄의식을 덜어줄 수 있으리라는 추정이 숨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죄의식은 자초하여 입는 모든 상처들이 그러하듯 언제까지나 영원하며, 행동 그 자체만큼 생생해진다. 그것을 밝히는 행위로 인해, 그것은 다만 모든 이들의 상처가 될 뿐이다. 하여 나는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그 역시 내게 그러했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 단편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중에서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몽환적인 사운드, 폐쇄적인 분위기의 슈게이징 장르를 연주하는 영국의 밴드 스피리츄얼라이즈드(Spiritualized)의 음악을 떠올렸다. 특히 그들의 정규 3집 <Ladies and Gentlemen We Are Floating in Space> 앨범의 1번 트랙인 'Ladies and Gentlemen We Are Floating in Space'란 곡이 무척이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팀의 리더이자 프론트맨인 제이슨 피어스는 "구원이란 없고, 사람의 삶에는 절대 끝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감정을 앨범 전반에 녹여냈다고 설명한다. 이는 앤드루 포터 소설 속에 자리 잡은 슬픔과 비밀을 더욱 조밀하고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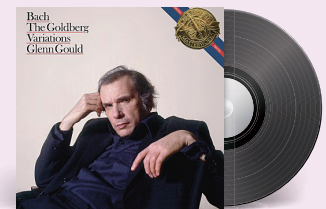
영국 슈게이징 밴드 스피리츄얼라이즈드.



혁오의 '공드리'는 영화 <이터널 선샤인> 주인공 조엘을 모티브로 만든 곡이다.

두 번째로 떠오른 곡은 국내 밴드 혁오의 '공드리'다. 이 곡은 영화 <이터널 선샤인>에서 아픈 사랑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주인공 조엘을 모티브로 만든 곡이다. 사랑을 지우려 했으나 역설적으로 사랑이 시작됐던 순간의 빛나는 기억들. 이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굴절돼 어디론가 사라지는 건 가슴 아프다. 헤더는 로버트를 잊으려 하지만 가끔씩 자신도 모르게 회상하는 일은 거부하기 어렵다. 그녀는 로버트의 텅 빈 집에서 홀로 그를 기다렸던 저녁을 떠올린다. 결국에는 떠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를 상상하고 그리며 기다렸던 그때. 헤더 역시 영화 속 조엘과 같은 모순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시간이 흐르고 헤더는 점점 로버트를 떠올리길 주저하고, 잊어간다. 그녀는 그에 대한 기억을 가장 고통스럽고 내밀한 상식들이 저장된 마음 한편에 놓아둘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그 기억은 영원히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새겨진 흉터.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사람들이 지닌 흉터의 형태와 아픔에 대해 생각한다. 빛과 물질의 존재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타인을 100퍼센트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일 것이다. ㉠



글렌 굴드  
'Goldberg Variations, BWV 988: Aria' 듣기



스피리츄얼라이즈드  
'Ladies and Gentlemen We Are Floating in Space' 듣기



혁오  
'공드리' 듣기



## | 조혜림 |

음악 콘텐츠 기획자이자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집필한 저서에는 <페이지스 7집 : 다시보기>가 있다.



# news

## 국립중앙도서관

01

### 국립중앙도서관, 제주에서 2022년 사서한마당 워크숍 개최

제주도에서 9월 29일(목)부터 30일(금)까지 양일간 '2022년도 사서한마당 워크숍'이 개최됐다.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사서한마당은 전국 도서관 직원들이 모여 도서관 현장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도서관 직원 간 소통의 시간을 갖는 화합의 자리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2022년도 사서한마당 연계 영상콘텐츠 공모전' 본선작 12편을 공개, 현장투표와 시상식이 있었다. 수상작에는 ▲대상(나주공공도서관 황인경), ▲금상(수봉도서관), ▲은상(마포중앙도서관 송지영), ▲동상(아리랑어린이도서관 박호주, 박태정, 이재선, 고창혁, 김선우)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수상자에게는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상 및 부상이 수여되고, 수상 작품은 향후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사서 교육 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특별강연) '관계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연세대 권수영 교수), ▲(문화공연) '넌버벌 뮤지컬 '난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올해 교육과정은 사서교육누리집(edu.n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도서관인재개발과 02-590-0553



2022년 사서한마당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영상 공모전 본선 작품을 보고 있다.

02

### 2022년 한·일 국립도서관 온라인 업무교류 개최

9월 21일(수) 국립중앙도서관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관장 요시나가 모토노부)은 '2022년 한·일 국립도서관 온라인 업무교류'를 개최했다. 양국 국립도서관은 이번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위드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국립도서관 현황과 과제' 및 '국립도서관의 디지털 큐레이션과 정보 서비스 제공'에 대해 논의했다. 기조 보고에서는 '양국 도서관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온라인 자료의 안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노력: 저작권 조사 및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발굴을 중심으로(권정임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운영부 디지털정보기획과 사무관), ▲자료 전시의 디지털 전환: 도서관 큐레이션의 일례로서(오가와 나루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이용자서비스부 서비스기획 계장)로 양 기관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적으로 문화교류가 위축되었지만, 양국이 힘을 합쳐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업무교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자는 뜻을 모았다.

문의 국제교류홍보팀 02-590-6328



2022년 한·일 국립도서관 온라인 업무 교류 모습.



03

### 국립중앙도서관 '2022년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 개최

'2022년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이 10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개최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학 사서에게 한국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경험 공유, 인적교류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는 독일, 미국, 영국 등 총 6개국에서 20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의 고인쇄 문화 및 고서 판본 감별법, 고문헌 목록 구축 방법 및 한국고문헌종합목록 안내, 도서관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활용 사례 등의 강의를 제공했다. 또한 참가자들의 한국학 자료 및 현황 사례 발표를 통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이번 워크숍과 연계하여 국내외 한국학 사서 커뮤니티 간 첫 연차회의도 10월 18일(화) 개최되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문의 국제교류홍보팀 02-590-6325



2022년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 단체사진.

04

### 최근 3년간 20대·30대의 공공도서관 대출 현황 분석 결과 발표

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2022년 청년 책의 해'를 맞이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최근 3년간 20대와 30대 청년들의 공공도서관 대출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대출 도서 상위 50위까지 분석한 결과, 20대와 30대의 도서 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소설'이고, 30대는 소설(36%)뿐만 아니라 경영관리·금융(20%), 육아(16%), 에세이(14%)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문학 분야 대출 결과 30대 대출 대비 큰 차이를 보이는 20대의 대출 분야는 ▲경영관리, ▲프로그래밍·전산학, ▲사회학·여성문제 순이었다. 반면 30대의 대출 분야는 ▲육아·유아 및 초등교육, ▲금융, ▲식품과 식료 순이며, 금융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자녀교육과 육아에 관련된 도서가 주를 이루었다. 대출 급상승 도서는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하와이·괌·사이판 등 오세아니아 관련 도서의 대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크게 증가했다. 해외여행 외에 2030 청년 세대의 대출 급상승 분야는 미술전시(54.47%), 드로잉·수채화(46.95%), 달리기·마라톤(37.35%) 등으로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문의 디지털정보기획과 02-590-6230



분석 결과를 나타낸 인포그래픽.



##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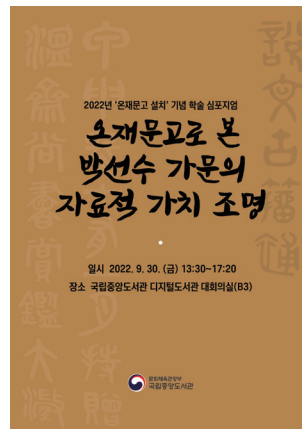
### 국립중앙도서관

05

#### 연암 박지원 가문의 실학 및 개화사상 학술 심포지엄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연암 박지원(1737~1805)의 손자인 온재 박선수(1821~1899) 가문의 소장 고문헌을 기증받아 설치한 온재문고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9월 30일(금)에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온재문고는 박선수뿐만 아니라 북학과 실학자인 할아버지 박지원, 개화사상가인 형 환재 박규수(1807~1877)의 저술, 고문서, 장서인, 호패 등 1208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유득공의 서문이 기록된 <열하일기> 등 연암 박지원의 저술 9종을 새롭게 발굴하여 학계에 소개했다. 또한 박선수가 중국 최초의 한자사전인 <설문해자>를 수정 보완하여 저술한 <설문해자익징> 초고본의 가치도 조명했다. 조영주 지식정보관리 부장의 개회사로 문을 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실학 및 개화사상 관련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주제별 발표와 토론이 함께 이루어졌다. 온재문고 자료는 작년 7월부터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실에서 열람(고문서 제외)할 수 있으며, 올해 연말에 누리집을 통해 원문 이미지가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발표 자료는 한국고문헌종합목록([www.nl.go.kr/korcis](http://www.nl.go.kr/korcis)) 누리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문의 고문헌과 02-590-0507



학술행사 안내 포스터.

06

#### <세상을 잇는 신비한 탐험, 칠레> 전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한국-칠레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주한 칠레 대사관(대사 마티아스 프랑케)과 공동으로 12월 18일(일)까지 <세상을 잇는 신비한 탐험, 칠레>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칠레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Chile)에서 마젤란의 세계일주 50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한, <세 세계의 만남, 최초의 세계 일주 500주년(Encounter Between Three Worlds: 500 Years After the First Circumnavigation of the Earth)> 전시를 제공받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새롭게 기획하여 개최하게 되었다. 총 4부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고지도를 통해 본 마젤란 세계 일주의 대항해 역사를 소개한다. 또 대형 지구본과 인터랙티브로 터치 월을 설치하여 마젤란 항해의 여정을 체험해 볼 수 있다. 그밖에 서양인에 의해 발견된 마젤란 해협 칠레 원주민과 현재 칠레, 그리고 그곳의 지리와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등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칠레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사진과 영상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전시는 휴관일(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전시 내용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누리집([www.nlcy.go.kr](http://www.nl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 02-3413-4774



<세상을 잇는 신비한 탐험, 칠레> 전시 포스터.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07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야기가 있는 코딩 공모전' 개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코딩으로 구현하는 나의 도시, 나의 마을'을 주제로 코딩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독서와 코딩을 연계한 융합교육 프로그램인 '2022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에 참여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이나 단체(2~3명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 일정은 10월 17일(월)부터 11월 13일(일)까지 공모 접수 시작, 11월 중 예·본선을 거쳐 12월 3일(토)에 최종 현장평가와 시상할 예정이다. 선정된 총 8점에 대해서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상과 부상이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누리집([www.nlcy.go.kr](http://www.nl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 02-3413-4753



'2022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 공모전' 포스터.

08

####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정재승의 과학콘서트> 개최

10월 12일(수)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정재승 교수(카이스트 바이오뇌공학과)의 '뇌과학에서 얻은 삶의 성찰'을 주제로 강연이 열렸다. 이번 강연에서 정재승 교수는 뇌과학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토론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정교수는 "복잡계 물리학이 인간관계, 뇌, 심리 같은 다양한 영역과 접목되면서 삶에 대한 자신만의 해답을 찾기 위해 질문을 던지는 능력을 기르고 시도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 및 추첨을 통하여 참가자 10명에게 저자의 사인이 담긴 저서 증정 이벤트도 진행했다. 정재승 교수의 주요 저서로는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열두 발자국>, <물리학자는 영화에서 과학을 본다>, <뇌과학자는 영화에서 인간을 본다> 등이 있다.

문의 국립세종도서관 서비스이용과 044-900-9138



정재승의 <과학콘서트> 포스터.



# news

## 국내외 도서관

### ❶ 전국 도서관대회, ‘다시 일상으로! 함께하는 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가 10월 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총 3일간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제59회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이하 전국도서관대회)를 개최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전국도서관대회는 ‘다시 일상으로! 함께하는 도서관’이란 주제 아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달라진 국민의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 강연 등이 진행됐으며 국가도서관을 비롯해 각종 협의회들이 관중별 이슈를 공유했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세미나와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실습형 튜토리얼도 진행됐으며, 도서관 및 도서관 관련 기업 및 출판사가 참여해 부스에서 신기술 및 관련 제품 등을 소개하는 <도서관문화전시회>도 진행됐다. 전국도서관대회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❷ 100주년 맞는 남산도서관

남산도서관이 10월 5일 설립 100주년을 맞았다. 1922년 10월 5일 명동에 문을 연 남산도서관은 서울의 1호 공립도서관이기도 하다. 당시 이름은 경성부립도서관이었으며, 옛 한성병원 건물을 고쳐 썼는데 열람석 60석 규모의 작은 도서관이었다. 남산으로 터를 옮긴 건 1965년이었다. 공공도서관을 왜 교통이 불편한 산 중턱에 짓느냐는 거센 비판도 받았지만 지금은 교통이 나빠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도서관이 됐다. 새로운 100년을 맞아 남산도서관은 변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2층으로, 올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기존 신문, 잡지, 컴퓨터를 이용하던 공간을 카페처럼 꾸미고 ‘디지털 라운지’라고 이름 붙였다. 폭신한 의자와 소파가 놓여 있고, 노트북을 빌려 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이 케이팝을 들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 국내 도서관



❶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 포스터.  
(출처 : 한국도서관협회)



❷ 출처 : 남산도서관 누리집



❸ 출처 : 수성구청

### 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각 부처·지방자치단체 대상 도서관 정책 평가 첫 시행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추진을 점검하기 위해 도서관 정책과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이번 평가는 각 부처와 사도가 추진한 연차별 시행 계획을 점검해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국가 도서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도서관위원회는 2월 ‘2021년 추진실적 평가위원단’을 구성해 23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의 408개 추진 과제(중앙 73개, 시도 335개)를 평가했다. 점검·평가 결과, 총 3등급 중 ‘우수’ 기관 20개(중앙 14개, 시도 6개), ‘정상 추진’ 기관 20개(중앙 9개, 시도 11개), ‘미흡/개선 필요’ 기관은 없어 당초 계획에 따라 대부분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된 것으로 평가됐다. 그밖에 평가위원단은 ‘2021년 우수 추진과제’와 우수 추진과제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선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한 과제 담당자 17명을 ‘2021년 우수 담당자’로 선정했다.

### ❹ 대구수성구청, 드론을 이용한 상호대차 책 배송

대구 수성구가 드론을 활용한 ‘책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앞서 지난 5월 수성구청은 연구용역에 착수해 전용 배송함과 드론, 낙하산, 정밀 센서 이착륙 패드 등을 제작했다. 이번에 수성구가 도입하는 드론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구립도서관 간 상호대차 서비스를 드론으로 진행한다. 상호대차란 이용자가 대출 혹은 열람을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으면 다른 도서관에서 대신 빌려주는 시스템이다. 또 주민들이 직접 책을 받아볼 수 있는 ‘찾아가는 드론 책 배송’ 서비스도 도입한다. 책을 신청하면 도서관이 드론으로 책을 대상지로 보내주는 방식이다. 찾아가는 드론 책 배송 서비스는 도서관 회원이라면 누구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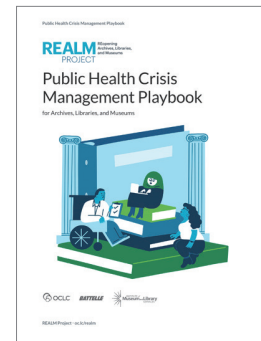
### ❺ 미국도서관협회, 2022년 금서에 대한 예비 데이터 발표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가 ‘금서 주간(Banned Books Week)’을 앞두고 발표한 예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개월(1~8월)까지 학교, 대학, 공공도서관의 금서 지정 횟수는 작년 1년간 수치와 맞먹었고 이대로 계속되면 연말까지는 이를 훨씬 더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자료를 제한하려는 681건의 시도 중 70% 이상이 다양한 출판물을 대상으로 했다. 과거에는 도서관 자료에 대한 대부분의 문제 제기가 한 권의 도서를 제거하거나 제한하려고만 했었다. 또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조직이 그들의 의견과 맞지 않는 도서의 목록을 퍼뜨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ALA는 ALA의 ‘도서 금지에 맞서는 연합(Unite Against Book Bans)’ 캠페인과 함께할 것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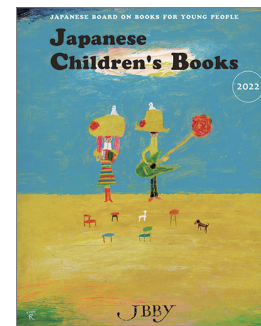
### ❻ 국제도서관협동조합연합, 도서관의 메타데이터 권리에 관한 성명서 공개

국제도서관협동조합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of Library Consortia, ICOLC)이 ‘도서관의 메타데이터 권리에 관한 성명서(Statement on the Metadata Rights of Libraries)’를 자관 누리집에 공개했다. 본 성명서의 작성자와 서명 기관들은 도서관 메타데이터에 대해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설정될 수 없으며 서지 메타데이터는 널리 공유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미국 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의 주장에 동의했다. ICOLC 회원 컨소시엄과 본 성명서에 서명한 기관 및 개인들은 도서관이 생성하거나 보강한 서지 메타데이터를 도서관들이 효과적으로 사용, 재사용, 수정, 수집, 공유할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함을 성명서에 밝히고 있다.

### 국외 도서관



❶ 출처 : OCLC



❷ 출처 : JBBY



국내외 도서관 소식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웹진 월드라이브러리(librarian.nl.go.kr)에서 확인하세요.

### ❷ OCLC, 기록보관소·도서관·박물관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 관리 지침서 발간

온라인 컴퓨터 도서관 센터(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OCLC)의 ‘기록보관소, 도서관, 박물관 재개관 프로젝트(REOpening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Project, REALM Project)’가 ‘REALM 기록보관소와 도서관, 박물관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 관리 지침서(REALM Public Health Crisis Management Playbook for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를 발표했다. 중대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그러한 상황을 거치며 회복 중에 있는 문화유산기관들에 도움이 되는 프로세스와 자원, 도구를 제공한다. 이 자료는 기록보관소, 도서관, 박물관의 위기관리팀 또는 커뮤니케이션팀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침서는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며 PDF 파일로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 ❸ 일본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해외에 소개하고 싶은 일본 어린이 도서 가이드 영문 배포

일본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Japanese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 JBBY)는 해외의 출판 관계자들에게 일본의 어린이 도서 번역판 발간을 촉구하기 위해 영어판의 도서 가이드를 만들어, 국제아동청소년협의회(International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 IBBY) 세계 대회나 해외의 도서전, 어린이 도서 관련 국제회의 등에서 배포하고 있다. 대상 도서는 해외에도 소개하고 싶은(일본에서 출판된) 아동 도서 작품, 일본 아동 도서를 대표하는 뛰어난 내용의 작품, 해외 어린이들이 일본의 문화와 일본 어린이들의 삶을 접할 수 있는 작품, 해외 번역 출판을 기대하는 작품, 일본의 아이들, 학부모, 도서관, 출판 관계자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다.



# 연구정보서비스 RINK

글 이해민 그림 보리보리쌀

